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0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염창동지점 거래고객
(주)대명이십일 김명희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대구지점 거래고객
(주)샘초롱 차훈일 대표



낯선 누군가의 연락 두렵다면 112 일기쟁찌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감정적 테러 보이스피싱

연락을 멈추고
주변에 상의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i-ONE 가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세요!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확인해보세요!

04



04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나에게 쓰는 편지

12 이달의 편지

‘아드님 빌려 드려요’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대명이십일 김명희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샘초롱 차훈일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어디서 웃어야 하나’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이만하면 다행이다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청춘의 빛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10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릉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나에게 쓰는 편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여성시대 가족들이
 스스로에게 쓴 '나에게 쓰는 편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위로의 말과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응원 속에
 우리의 마음의 키는 한 뼘쯤 더 성장했을 겁니다.
 이제 곧 이 말과 마음들이 모여 노래가 될 예정입니다.

여성시대 50주년 특집 응원 프로젝트의
 밑바탕이 되어준 '나에게 쓰는 편지'.
 편지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8년 전 나에게

애청자

현이야, 38년간 잊고 지냈던 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쓸게.

38년 전 그때 내 나이는 27살이었어. 아직 한참 어린 나이였지. 평소 건강했던 나는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하며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 말하는 게 어눌해져서 발음도 안 되고 한쪽 얼굴도 감각이 이상했어. 병원에 달려가서 진찰했더니 뇌졸중이라더라.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나는 정신을 놓을 뻔했어. 뇌졸중이라니?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나한테 뇌졸중이 오다니!

하루아침에 나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린 내 몸을 보며 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 그냥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주나 싶었어.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도 달라진 게 없었어. 퇴원하고 집으로 왔지만 집안일은 할 수 없었지. 열심히 재활 운동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나는 듣지 않았어. 절망과 분노만 자꾸 올라왔고 결국 술에 입을 대고야 말았지.

나에게 술은 매우 안 좋은 거였지만 그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술뿐인 것 같았어. 술을 마시면 절망과 분노가 사라

졌거든. 나를 위로해 주는 듯했어. 술을 마시면 내 몸은 정상인 같았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멸시와 비하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 나는 한 번 술을 마시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셨어. 그러다 길에 쓰러져 있기도 했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어.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자꾸 다투었고 나는 이혼당했어.

가방 하나 들고 절룩거리며 돌아온 나를 보고 칠순 넘으신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어. 일찍 혼자되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이보다 연로하셨는데 주름진 얼굴에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를 보며 많은 걸 반성하게 되더라.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처음으로 원망스럽고 미안했어.

그때부터 나는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어. 매일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어.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우리에게 쏠렸지. 늙으신 어머니가 딸을 부축해서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하기도 했어. 그래도 나는 꼭 참고 열심히 다녔어.

꾸준히 치료받고 술도 끊으니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더라. 어눌했던 말투도 많이 좋아져서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작은 물건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던 팔로 집 안 청소며 설거지도 다시 하게 됐어.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자꾸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 나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났던 거야. 아이들

을 키우며 나는 '삶이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 아이들과 남편은 내게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매일 안겨주었지. 3년 전엔 금쪽같은 손주도 보았어.

27살 현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절망스럽게 살았는지 너에게 많이 미안하단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그때의 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다 잘될 거니까 울지 말라고 힘내라고. 우리 다시는 삶을 미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행복하자.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생 많았어, 현이야.

가장 자랑스러운 너에게

김성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2길

자랑스럽고 당당한 성관에게!

어느덧 마흔넷! 내 삶의 지도를 펼쳐보니 참 멀리도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일곱 살에 아버지 여의고 이듬해 여덟 살에 어머니마저 곁을 떠났을 때 어린 네 마음에 남겨진 상실감은 그저 시리고 아팠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야 했던 날들. 중학생 시절 내가 자고 있는데 큰어머니가 나직이 “성관이, 고아원에 보내야지”라고 했던 말은 아직도 내 귓가를 맴돌아. 그

때 나는 결심했지.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 삶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낼 거야!’

신문 배달로 학비를 벌겠다고 간청했던 어린 나. 그 끈질김과 절실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25살 벽돌 공장에서 일할 때 공장장님이 주워다 놓으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여성시대’는 나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어.

‘아,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는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러면 환경은 분명 바꿀 수 있다!’라는 굳건한 마음을 심어주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내일을 꿈꾸며 버텨낼 수 있었어.

아픔 속에서도 나는 한 줄기 빛을 찾았어. 바로 ‘사회복지사’라는 길이야. 억울하고 힘든 이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함이 나를 이끌었지. 지금까지 17년 동안 장애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어.

인천 장봉도에서 첫 사회복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육지 좋은 곳도 많은데 왜 섬으로 가요?” 하는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

“그냥 좋아서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향기가 되고 싶다는 내 초심은 세월이 흘

러도 변치 않았지. 18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2년간 편지를 쓰고 사진을 보내며 그 부모님 마음을 움직였을 때가 생각나. 그분이 “선생님, 이번 명절에는 집에 가보려 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게 사람다움이고 사람 내음’이라고 깊이 깨달았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장애인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참으로 할 맛 나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보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지.

잠시 지쳐 내려온 제주에서 만난 사랑하는 아내는 내 삶에 더 큰 선물과 같았어. 힘들게 살아온 내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울어주고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말해줬을 때 무지개가 내 마음속에 내려온 것 같았어.

말기 암이라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고민할 때 아내와 장모님의 따뜻한 조언 덕분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축복이었지. 미워한 마음만큼이나 깊은 그리움과 연민이 교차하면서 후회 없이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덕분에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었고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며 내 오랜 상처도 아물 수 있었어.

이제 내 옆에는 나를 ‘두꺼비’라 부르며 복스럽다고 칭찬하시는 자상한 장인어른과 넉넉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장모님이 계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계셨다면 해보고 싶던 꿈처럼 목욕탕에 가고 오순도순 식사하고 주말에 가족여행 떠나는 일

이 이제는 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었잖아. 밤에 혼자 자면 바람 소리가 무서워 불을 켜고 자거나 불 꺼진 집에 들어가 행복한 남의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어느 날 도착한 <자기는 사회복지사로서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아내의 따뜻한 문자 한 통은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더라. 내가 이토록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

신이 내게 하루를 선물하신다면 그 단 하루도 사회복지사로 일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나는 다음 생에도 사회복지사로 태어나고 싶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의 발은 부드러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어.

비록 힘들지라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 길을 나는 오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걸어가고 있어. 이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인연과 받은 모든 사랑 덕분에 나는 비로소 완전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

이제 나는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아. 그저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을 뿐이야. 어린 시절 가족을 그리워했던 아이는 이제 중년이 되어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소중한 삶을 살고 있

음을 나는 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나 자신아, 정말 수고 많았고 장하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너를 보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환하게 웃고 계실 거야.

인생은 아름답고 살아볼 만해요

박용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저는 오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심했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지 자문하면서 한참을 헤매곤 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에 괴로울 때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니다.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저를 지지하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늘 제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믿음과 사랑이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난이 길어도 부모님의 그 믿음은 저에게 버팀목이 되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제 삶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도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 함께 있어 주었고 때로는 기분 좋게 해주고 웃게 해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마음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 느껴졌고 그들의 응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많은 선생님과 멘토들도 지식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들의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제 삶에서 중요한 좌표가 되어줍니다.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하나 저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기에 저는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게 돼요.

“그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그때마다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제 삶은 지금처럼 힘차게 당당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제 삶의 큰 축이었고 저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도 그 같은 지지와 응원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겨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은 마음속에서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힘든 시기에는 잠시 멈추고 그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들이 보내는 응원의 말을 듣다 보면 점점 힘을 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믿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힘든 순간이 지나고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그 길을 걷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게 힘을 주는 분들께 감사하며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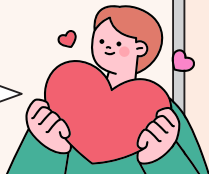
[3184]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어머니와 아내가 아버지와 제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똑같다고 해요. 76년을 쉼 없이 달려오신 아버지와 뒷모습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뒀합니다.

[8500] 저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번도 못한 거 같아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 사랑한다” 하시면 “네 저도요” 그랬던 거 같습니다. 아버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9026]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생전 집안일 안 도와주던 아버지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가장장적인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일을 도와주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얼마한테 무슨 잘못을 하신 거 같은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김병란] 저희 아버지는 좀 다혈질이셨어요. 자다가도 경운기 소리만 들리면 저는 발딱 일어나야 했죠. 안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그 시절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삶이 고달파서 화도 많으셨겠다 싶어서 이해되더라고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조진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 때면 “아빠는 니 곁에 있으니까 힘내라” 늘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빠 생각나서 자꾸 하늘을 보게 되네요. 아빠 사랑합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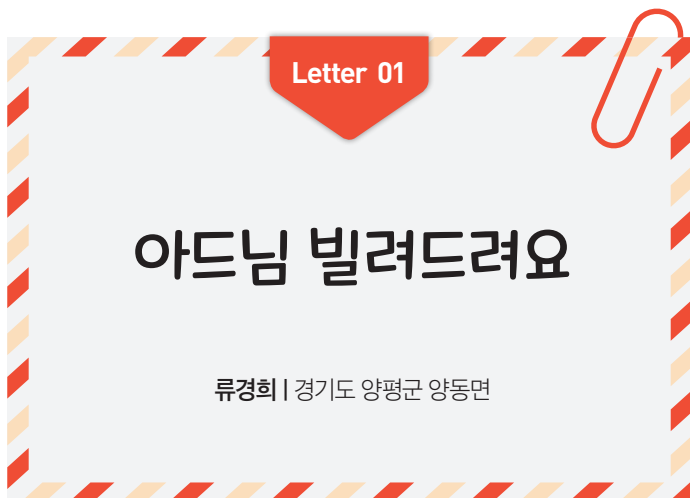




- | | |
|---------------------|------------------------|
| 16 아드님 빌려드려요 | 39 부모가 되었습니다 |
| 19 가전제품에 이름 붙이기 | 46 시어머니와 된장 |
| 21 사이좋은 부부 각방 쓰기 | 49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 |
| 26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 52 급성 혈액암으로 세상 떠난 딸 |
| 29 트라우마 극복기 | 56 친정엄마 올린 시어머니 이야기 |
| 32 그리운 당신께 | 60 베트남 한 달 살기 |
| 35 쓰레기를 뒤진 생일 | |



일러스트 | 조신애



토 요일 오후 9시, 나는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새벽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 속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밝았다.

“어디 가려고?” 묻는 내게 “어서 주무세요. 널 뵈게요” 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딜 가는 걸까? 궁금했다. 그러나 어서 자야지. 휴대폰 알람에 4시 30분을 저장했다. 아들은 정확히 새벽 5시에 도착했다.

“저 왔어요.”

아들은 혼자였다.

“네 처는? 애들은 같이 안 가고?”

“집에 있겠데요. 어서 타세요.”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걸 기다리며 아들이 말한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어딜 가는데?”

“동해 바다요. 일출 때는 깨워드릴게요.”

아들은 아주 밝은 목소리다. 영동 고속도로로 들어서니 안개가 낀 설악산이 가깝게 다가온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조금 후에 안개는 운무가 되어 하늘로 떠오르며 하늘거린다. 이른 새벽 고속도로는 어쩌다 한두 대의 차량만 보인다. 아들의 어린 날 이야기, 아들 직장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며 포근한 기분에 빠져든다. 아들은 앞선 차량과 차간 거리를 정확히 두고 안정된 운전을 하고 있다. 강릉을 지나며 아침 햇살이 물든 바다는 주황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참 보기 좋았다.

차량용 핸드프리로 전화가 왔다. 아들은 “지금 거의 다 도착하고 있어. 어머니 컨디션 좋아 보이셔” 말하자, “어머니!” 하고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그래. 애기도 가야지, 왜 안 오고. 애들이랑 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머니, 오늘은 아드님과 데이트하세요. 제가 아드님 빌려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달라고 하고 멋진 커피숍에도 가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과 다시 대화를 나눴다. 며느리의 아들을 빌려준다는 말에 황당했다. ‘내 아들인데 빌려주다니?’ 생각하다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렇지. 수많은 하객들 모셔 놓고 내 아들을 며느리의 남편으로 공식으로 보냈었지. 그러니 소유권이 내게는 없는 거지. 며느리의 기분 좋은 선심에 난 엄청나게 고마웠다.



남편이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렇게도 서럽고 서러운 남편 없는 결혼 기념일이면 큰며느리는 말없이 주말 하루를 큰아들과 같이하게 배려해 주었다. 큰아들은 발이 편한 신발을 찾아 신어 보게끔 해주고, 남편이 43년 동안 선물해 준 속옷을 고르게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바다를 보며 작은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다정한 전화를 하는 고마운 작은 며느리. 이렇게 선물 같은 소중한 며느리들을 보며 나는 외로움을 이겨내며 행복한 기운을 가슴 가득 간직한다.

Letter 02

가전제품에 이름 붙이기

김재순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프린터가 고장 났다. 10여 년을 사용했으니 지칠 만도 하다. 남편이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드르륵드르륵 나더니 인쇄가 된다. 고쳤다. 훌륭한 기술자라고 엄지 척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프린트야, 지금 돈 없으니 고장 나면 안 된다” 그렇게 달랬다고 한다.

‘아, 혹시 이름이 없어서 빠졌나?’ 싶었다. 우리 집 다른 가전제품은 이름이 있다.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 비교할 당시 스탠드형 하나에 벽걸이를 더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았다. 유난히 더위를 타는 딸을 위해 2 in 1으로 결정했다. 남편은 “하여간 딸 일이 라면 돈도 많아요”라고 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남편 놀리는 일이다. 그래서 스탠드형 에어컨의 이름은 ‘하여간’이고 벽걸이 에어컨의 이름은

‘돈 많다’로 지었다.

그다음 해에 ‘의류 관리기’를 샀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겨울에 자주 세탁할 수 없는 코트나 패딩에 제격이었다. 제 몫을 하는 의류 관리기에게 말했다. 네 이름은 ‘너도 잘났다’라고.

건조기는 좁은 집에 사는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다. 집이 넓으면 빨래를 널어놓을 공간이 많겠지만 우리는 어깨가 부딪칠까 봐 피해 다녀야 한다. 한여름 장마와 긴 겨울이면 온통 덜 마른 빨래로 가득하다. 하루 두 차례 연달아 일하는 건조기가 내게 큰소리쳤다. “나도 잘났어요.” 그 참에 ‘나도 잘났다’라고 자존감 높은 이름을 지어줬다.

모두 자신의 이름에 만족한다. 다들 너무 기특해서 아프지 말라고 쓰다듬어 주었다.

엿그제 선풍기 날개가 부서졌다. 하긴 너무 오래 사용했다. 큰 마음 먹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구입했다. 남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선풍기 전기선을 살살 잡아끌고 있다. 나는 놀라서 줄을 째 잡았다.

“아니, 왜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도 몰라.” 아마 남편은 선풍기를 오래 써야 한다는 마음만 커서 조심조심 옮기려고 했던 모양이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선풍기도 이름을 받았다. ‘끝지 마.’

선풍기까지 이름을 갖게 되니 프린터가 단단히 빠졌다.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왔다면 공을 인정해 달라는 아우성이다. 가족 카톡방에 ‘이름 짓기’ 공모를 올렸다.

Letter 03

사이좋은 부부 각방 쓰기

김미자 | 충남 천안시

저는 지금 50세입니다. 만 나이로는 48세. 정년까지 일하려면 아직도 12년을 더 일해야 해요. 저는 제 일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정년을 지나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어쩌면 정년까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제 남편 때문입니다. 아참,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 자랑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5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잘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성시대에서 남편과 각방을 쓰는 문제에 대한 사연을 들었어요. 그 사연에서는 부인께서 각방 쓰는 걸 꺼리는 것 같았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각방을 쓰고 싶어 해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각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부부가 따로 잘 수 있어? 그게 부부야?’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오십 줄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갱년기가 온 건지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도 진짜 갱년긴가?”

“우리 아내, 잘 잤는가!”

“잘 자긴! 어제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깨서 그 뒤부터 잠을 못 잤어.”

“내가 코를 골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 때린 거야? 잠결에 자기가 툭툭 치는 거 느끼긴 했는데.”

남편은 장난 섞인 말투로 말하는데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하면 팔을 찰싹 때리기도 하고 잠깐 흔들기도 하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잠깐 코 고는 걸 멈출 뿐 절대 깨진 않더라고요. 물론 코 고는 게 잘못은 아니죠. 저 역시도 침도 흘리고 코도 골고 방귀도 끼어요. 하지만 남편 코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자기야 나 진짜 장난이 아니고 한숨도 못 잤다니까. 우리 따로 자는 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긴 나랑 자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어떻게 부부가 각방을 써. 그게 부부야? 남이지? 그럴 거면 자네가 나가게.”

이렇게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매번 장난으로 받아치니 저만 답답해하는 상황의 반복.

사실 남편이 각방 쓰는 거에 반대하는 거 빼곤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일등 신랑감입니다. 처갓집에 잘하고 애들한테 자상하고 술도 회사 일로 먹는 거 빼곤 잘 절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제가 강압적으로 각방을 요구할 수 없어서 문제랍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어 언니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언니들은 이미 다 각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예전부터 말이죠.

“야, 네 남편이랑 아직도 같이 자니? 하긴 이 언니도 젊을 땐 네 형부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였다. 그 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왔어. 근데 지금은 자장가 소리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드러워.”

“그래 넌 아직 젊구나. 언니가 이 살이 말이야 잘 먹어서 찐 살이 아니다. 네 형부 때문에 잠 못 자서 부은 거야.”

“우리 미자는 참 착해. 남편하고 각방 안 쓰고.”

예전에 언니들 말을 들을 때는 왜 저렇게 형부들을 미워하는지 생각했는데 이 잠 못 자는 사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면 내가 진짜 남편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지인들도 제가 아직 남편과 같이 잔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아직도 신혼이야? 누가 요즘 같이 자. 우리 부부는 그냥 동거인이지.”

“그래 지금부터 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 서둘러. 아주 신세계를 만날 거야. 진행시켜!”

“아니, 안 더워? 신랑한테 냄새 안 나? 아주 성격 좋은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대인배인 줄 몰랐네. 존경해!”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각방 쓰는 부부들이 더 사이가 돈독하고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웬다구나 하고 그 기사를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자기 실망이야. 진짜 이럴 거야? 자기가 진짜 정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이 기사 하나를 떠령 보내왔



습니다.

<중년 부부의 각방은 위험! 새벽 두통을 서로 살피야 하는 이 유? 남편이나 아내에게 돌발 상황이 닥쳐도 즉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기사 봤는가? 자네 날 버릴 건가! 난 자네를 지켜줄 걸세. 우린 부부잖아>

이런 기사를 보니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따로 자면 위험하겠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회식이 잡혔다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온 거예요. 저는 마침 피곤해서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밀치고 눕기에 미안했는지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 아내, 잘 잤는가!”

“자기야, 다른 방에서 잔 거야? 왜? 근데 자기야~ 나 어제 한 번도 안 깨고 폭 잤어. 너무 개운하다.”

“자기 아주 나 없어서 신났더라? 각방 타령하더니 어제 대자로 누워서 코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던데?”

“진짜? 나 코 많이 골았어?”

“으이그 그렇게 좋냐? 나랑 안자니까?”

“아니야, 뭘 좋아. 그냥 잘 잤다는 거뿐이지. 자긴 잘 못 잤어?”

남편은 제가 너무 잘 잤다고 하니까 각방 쓰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으면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착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영원한 각방이 아닌 서로를 배려해 주는 ‘자연스러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자고 또 늦게 자도 부담 없는 주말엔 잠 좀 설치도 되니까 같이 자고 어쩌다 술 마시는 날이면 남편이 유난히 코를 고니까 그날은 따로 자고 그러고 있어요.

제 긍정적인 성격 탓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서 갱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야~ 우리 앞으로 40년 아니 50년은 더 살아야 하니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살자. 지금보다 더 재밌게 나 웃겨주며 살 거지? 자기가 82살까지 아침밥 해주고 웃겨준다고 했잖아. 우리 잠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밌게 살자. 사랑해.”

Letter 04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애청자 | 베트남

작 년 늦은 여름, 남편이 평소 안 입던 정장 재킷을 찾더니 외출을 서둘렀다. 그날 남편의 외출이 우리의 인생 2막을 이토록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요즘 나는 평소 친절엄마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며 혼자 웃을 때가 많다.

“인생 칠십 다 살았는데 무슨 팔자가 바뀌겠어 했더니 내 친구 보니까 늦게도 팔자가 확 바뀌더라. 개가 그렇게 큰 아파트에 밥 먹듯이 해외여행을 다닐 줄 누가 알았겠냐?”

딸이 성공한 덕분에 늘 돈에 허덕이던 친구분이 늦게 팔자가 활짝 피었다며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말씀하시곤 했다. 그때 내가 그랬던가.

“엄마, 그 나이쯤 되면 다 살아온 대로 살겠지. 무슨 변동이 있

어? 그 아주머니는 복권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확률이고.”

내일모레면 나도 칠십. 그래서 이 나이쯤이면 평범한 월급쟁이의 아낙으로 고만고만하게 살던 나의 삶이 뭐 크게 달라지랴 싶었다. 그날 남편의 정장 입은 뒷모습을 배웅하며 나는 남편의 해외 취업이 뒤늦게 이뤄지리라 상상이나 했을까.

남편은 남들은 다 은퇴한 칠십 나이에 고맙게도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녔다. 비록 출근 일수는 줄었지만 내 인생 후반은 송곳 인생이 아닌 나팔꽃 인생이라 여기며 감사했다. 그러던 참에 남편에게 해외 취업 제안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농담 삼아 말했다.

“설마 가게 되겠어? 그래도 가게 되면 가지 뭐. 남들은 은퇴 이민도 간다는데 우리는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면 좋잖아?”

그런데 정말 그날이 온 것이다.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현지에서 서류를 요청하고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등 남편의 일정이 바빠졌다. 10월에 현지 회사와 계약이 이뤄지고 출가한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후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만 일찍 통보되고 말았다.

추석이 통보하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다. 아빠 나이에 혹여 타국에서 병이라도 나면 어찌느냐는 것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부부도 가장 걱정한 것은 건강 문제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히 잘 알지. 내가 아무리 우겨도 물리적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객지에서 병이라도 나면?’ 하는 가정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대비하되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그 후에도 아이들의 설득과 반대가 한동안 지속됐는데 막상 출

국 날짜가 정해지자 아이들의 염려도 염려지만 남편도 난생처음 하는 해외 생활이 다가오자 흑독한 몸살로 끙끙 앓아누웠다.

아무튼 우리 부부는 지금 베트남에 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이것이 꿈일까 생시일까?’ 얼떨떨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베트남의 관광 도시와 달리 여기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찐 로컬이다. 남편은 한국 지사 파견 근무가 아닌 베트남 현지 회사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근무 중이다.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 그가 짧은 영어로 그동안 공부해 온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지 그저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4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회사에서의 고충이나 힘들음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유일한 장점이라 나는 말하곤 했다.

“오늘은 좀 어땠어? 괜찮았어?”

내 물음에 남편은 늘 대답이 똑같다.

“응, 여기 직원들도 실력이相当해. 내 영어가 짧아도 전문 용어니까 할 만해.”

말은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왜 없겠는가. 오늘은 문득 남편의 출근하는 뒷모습에 신혼 시절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이 듦의 쓸쓸함이 묻어 있는 그의 뒷모습. 넓기만 했던 그의 어깨에도 어느 사이 연륜이 내려앉았다. 마음과 달리 살가운 말에 인색했는데 하지 못한 말을 오늘은 해야겠다.

“오기 전에 많은 번민으로 당신이 밤새 끙끙 앓을 때 위로하지 못해 미안했어.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어준 당신을 격하게 응원해. 사실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지!”

Letter 05

트라우마 극복기

애청자

매 일 아침 여성시대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요즘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자전거도 못 타고 지금껏 뭐 했냐’고 편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제 나름 아픈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자전거를 타며 놀다가 앞서 달리던 형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다행히도 형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때의 사고 충격이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됐죠.

그 후로도 여러 계기로 자전거 타기에 도전했지만 자전거만 타면 나타나는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인해 저의 자전거 도전기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자전거를 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학교를 다녀온 10살 딸이 저에게 뛰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요. 친구 하윤이는 아빠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준다고 자랑했어요. 예쁜 핑크색 공주 자전거도 샀다고요. 아빠 제발요~ 제발요~ 자전거 가르쳐 주세요.”

옆에서 같이 딸의 말을 듣던 아내는 제 눈치를 살핍니다.

“안돼. 너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가뜰이나 주의 산만해서 잘 넘어지는 애가!”

사실 다분히 저를 의식해서 한 말이겠지만 아내는 위험하단 이유로 단호하게 딸아이를 타이르더군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내와 연애 시절에도 남들 다하는 자전거 데이트 한 번을 못 해봤고 입대 전 친구들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났던 자전거 국토종주 때도 저만 홀로 빠져 아쉬움을 삼켰었죠.

큰애에게도 다른 아빠들처럼 자전거를 알려주기는커녕 혹시나 자전거를 알려 달라고 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그 혼한 세발자전거조차 사주지 못했었네요. 문득 이렇게 제 트라우마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추억거리를 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망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손을 잡고는 “현서야~ 아빠가 자전거 꼭 알려줄게. 그런데 아빠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지?”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에 딸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고 그렇게 그날 저녁부터 저의 자전거 트라우마 극복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공원까지는 나왔지만 자전거 앞에서 머뭇거리를 한 시



간. 안장 위에 엉덩이를 올리기까지 한 시간. 또 천천히 페달을 밟기까지 한 시간.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서투른 저의 자전거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험기중 때문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몇 미터를 타고 쉬는 걸 계속 반복하지만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는 행복한 상상을 하니 이젠 공원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한결 즐겁고 가벼워지네요. 이렇게 저는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Letter 06

그리운 당신께

송미숙 | 서울 강북구 삼양로

여 보! 우리 이사 왔어요. 6월의 마지막 날 기상청에선 비가 내릴 거라 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아마 네댓 시간쯤 이삿짐을 썼어요. 크고 작은 짐들을 하나둘 옮기고 마침내 텅 빈 집이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마지막 언덕 위의 집을 떠나며 오만가지 생각이 저를 슬프게 했어요. 이제 점점 당신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간직되겠구나 싶었어요.

당신이 떠난 지 석 달 열흘, 이 무더위처럼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아직 뜨겁기만 한데 정말로 당신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비록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당신을 데려올 수 있어 다행이라 그렇게 위로하려고요.

작은 마당이 있고 화단엔 봉숭아꽃이 피어있는 이 집에 온 지

열흘이 되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고 가끔 하염없이 대문 밖을 바라보아요. 행여 바람처럼 당신이 다녀가진 않을까 그 모습을 내가 놓치는 건 아닐지 착각하면서요.

그제 밤에는 어떤 할아버님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집 앞이 흰히 트인 멋진 집을 보여주며 이 집이 부자가 될 집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마 당신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아요.

여보!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요. 당신의 착한 아들과 은근히 강한 내가 푹푹 뭉쳐 잘 살아갈게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분이 그러시더군요. 당신이 눈을 못 감고 가셨다고요. 당신은 고작 예순여덟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고 당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들과 아내까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섭리인걸요. 당신이 떠날 때는 막 봄이 시작되던 즈음이었어요. 개나리나 목련이 피어날 때 쯤 암보다 무서운 고질적인 당뇨와 악화된 무릎관절염이 당신을 괴롭혔지요.

하지만 그렇게 맥없이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다정하게 마음 아프지 않게 배려하고 응원하고 토닥 토닥 등이라도 어루만져 주었을 텐데요.

사실 당신과 함께한 마지막 일 년은 너무 힘겨웠어요. 나도 모르게 짜증 부리고 화내며 아픈 당신을 더 아프게 했어요. 여보! 진심으로 미안해요.

당신의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항상 제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이 세상에 저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해 준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걸요.

세월이 가면 모든 게 다 잊힐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겐 당신을 위해 흘릴 눈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난 오늘도 오지 않는 당신을 원망하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아직은 당신이 시골 고향에라도 간 듯 당신의 부재가 믿기지 않아요. 두 달쯤은 날마다 울고 무력감에 시달리며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이제 4개월이 지나면서 정신을 좀 차려 보려 해요. 좀 늦은 나이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그곳에서는 눈곱만큼도 아프지 마요. 젊은 날의 당신처럼 활기차고 함박웃음이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줄래요?

오늘은 마른장마 끝에 추적추적 비가 내려요. 소나기 말고 가을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인걸요. 아주 오랜만에 차분한 마음으로 당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니 당신께 쓰는 첫 번째 편지였네요. 당신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여보 ‘고마워’ 이러며 싱글벙글했을 텐데요.

여보! 전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언니나 오빠, 따뜻한 나의 이웃들이 많이 보살펴줘요. 하루빨리 이 깊은 상실감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아주 가끔 우리가 잘 있나 바람처럼 다녀가 주세요. 꼭.

- 당신을 그리워하며 아내 씀.

Letter 07

쓰레기를 뒤진 생일

애청자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올해 최악의 생일을 보내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와중에 또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일은 7월 30일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죠. 그런데 올해는 중복과 날짜가 딱 겹쳤더군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정엄마를 모시고 생일 파티 겸 몸보신하러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삼계탕 가게에 갔어요.

보통은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애가 둘이다 보니 남편 차 뒷자리에 카시트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 친정엄마가 탈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제 차를 갖고 갔어요. 가게가 외각에 위치한 탓에 살짝 드라이브하는 기분도 느끼며 룰루랄라 하며 잘 도착했고 맛

있게 먹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어요.

근데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운전하던 남편이 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 앞 계기판을 보니 빨간색으로 ‘엔진 과열’이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높은 기온에 저희는 혹시나 엔진이 터져버릴까 무서워 바로 갓길에 차를 댔어요. 남편이 보닛도 열어보고 다시 시동도 켜보고 했지만 공포의 ‘엔진 과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견인차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전화한 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사색이 된 채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딸의 말을 들은 저도 사색이 되었죠.

“엄마, 나 교정기를 놓고 온 거 같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정을 한다고 하면 쇠로 만들어진 교정기를 이에 아예 고정해서 빼고 끼운다는 상상조차 못 했지만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들이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플라스틱같이 투명하고 빼고 끼울 수 있는 교정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큰맘 먹고 거의 400만 원에 달하는 그 교정기를 해줬는데 그걸! 그 400만 원짜리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40분 이상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느라 불쾌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있었는데 40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겨우 진정하고 삼계탕집에 전화했지만 이미 다 치워서 어떡하냐고 하기에 400만 원짜리라고 꼭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다행히 가게 측에서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게 측에서 찾아도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와중



에 호출한 지 1시간 만에 견인차가 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삼계탕 가게에서 전화도 왔어요. 하나를 찾은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어떡해요.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는데 견인차 운전자분이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가게까지 가져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에 저희 차를 매달고 삼계탕 가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 내외분이 하나밖에 못 찾았다고 하면서 어떡하느냐

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되해보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쓰레기 다 모아놨다고 쓰레기 봉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무게도 꽤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건네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게 밖을 나서는데 진짜 막을 틈도 없이 눈물이 철철 났어요. 눈물, 콧물, 땀까지 다 섞여서 차마 봐줄 수 없는 물골로 차에 탔죠. 생일날 나를 낳아주신 엄마랑 같이 몸보신하려고 했을 뿐인데 차도 고장 나고 교정기도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쓰레기도 뒤져야 하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쓰레기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이 먹고 버린 닭 뼈, 씹다 뺀 대추, 고추 꼭지, 침인지 똥지 알 수 없는 이물질 등등 오만 것을 보았지만 교정기는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설움이 복받치려던 그때 남편이 외쳤어요.

“찾았다!”

쓰레기봉투 가장 바닥에 휴지와 뒤엉켜서 붙어있던 교정기 하나. 정말 기운이 탁 풀렸어요. 얼른 꺼내서 소독물에 담그고 나니 삼계탕으로 몸보신한 게 무색하게 정말 기절할 것 같더군요. 참 힘들고 서럽고 하지만 다행인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마음에 쓰였는지 삼계탕집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찾았냐고. 그래서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사연이 채택된다면 삼계탕집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눈물도 한 바가지 땀도 한 바가지 흘렸던 제 생일도 위로해 주세요.

Letter 08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정호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저는 우리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 무안 항공대 소속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저는 서른 넘은 나이에 비행 공부를 시작했고 2020년 서른여덟 살이라는 나이에 감사하게 입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하고 둘러보니 다들 시집 장가를 갔더군요. 그때 선배님께서 해양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을 소개하셨습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일한다니 제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있어 신중했고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분이 먼저 묻더군요.

“아니, 우리 대체 무슨 사이죠?”

“네? 저, 저희는… 마, 만나는 사이죠.”

이런 어설픈 말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살 어린 여자친구에게 초반이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연애로만 만날 거면 만나지 말자. 나는 결혼할 상대가 필요해.”

그녀도 결혼 대상으로 저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대를 알기도 전에 사귀기 한 달 만에 덜컥 결혼식장을 예약해 버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죠. 상견례와 결혼 준비 등 모든 것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1월 중순에 만나 같은 해 7월 16일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과 겹쳤어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는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빠르게 이뤄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2022년 7월 16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과 바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만난 결혼식은 많은분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고 새롭고 재미있는 예식이라고들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연극영상을 전공해서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어요.

식을 마치고 임신 초기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하루 자고 이튿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내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급하게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좀 나아지자 아내가 제주도에 가자고 했습니다. 말렸지만 막지 못했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차를 빌리고 호텔로 갔는데 다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서울로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터라 치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오면 잠깐 나아지고 몇 시간 흐르면 다시 아파해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교수님은 입원해서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국 1주일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특이한 신혼여행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약은 쓰기 싫다는 아내를 보며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 절실함과 모성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회복해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삶으로 복귀해 가족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주일 뒤 산부인과에 검진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진지하게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심장이 안 뛰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를 지키려 그렇게 애쓴 아내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다니!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만하러 오는 수술실과 대기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을 받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기다리는 저. 어떠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실에서 나오자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했지만 서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이런 수술은 출산과 똑같이 힘들다기에 몸조리를 하러 처가댁에 가서 장모님이 해주신 미역국에 저희 둘은 슬픔을 말아 먹었습니다.

저희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신

혼이라 서로 의지하며 일상을 이어가다 보니 시간은 잘 가더군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을 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다시 찾아와준 생명이 너무도 소중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한계였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처음 같은 상황에 직면했고 두 번째 아기도 7주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니 난임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난임 병원 의사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 자연임신을 해보자더군요. 아내의 몸 상태에 맞추어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하자고 아내와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술은 할 때마다 심장을 후벼파는 듯 아파서 힘들었을 아내에게 저는 ‘아이를 안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위대하다고 아내는 아기를 꼭 갖고 싶어 했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고 나서 다시 난임 병원에 갔더니 그제야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사는 곳은 전라남도 무안이라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을 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오갈 때마다 차비와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러 가고 결과를 들으러 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약과 주사를 처방받고 힘들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난임 환자들의 노고를 본 적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부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는 남자는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여자는 할 일이 많아서 옆에

서 지켜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고 싶은 아내가 가장 힘든 사람임을 알기에 옆에서 응원과 격려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 한의원에 새벽같이 가서 오픈 런도 했습니다. 12월 30일 한겨울이자 아내 생일을 바로 그곳에서 보냈더랬죠. 아내와 함께 밤을 새웠는데 힘들어하는 아내는 차에 가서 쉬라 하고 저 혼자 버텼습니다. 아내가 그러하듯 저 역시 아빠가 되고 싶은 의지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난임 치료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맞추느라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시험관을 시도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터라 긴장되더군요. 수정된 세포 중 가장 건강한 2개를 아내 몸에 이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임신테스트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3~4일이 지나면서 아내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매번 실망감으로 변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라는 쓴맛을 봤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서 첫 번에 임신하면 ‘복권에 당첨’된 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이 아쉽게 끝나고 아내는 중대 결심을 하더군요. 그렇게 중시하던 회사마저 난임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 휴직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옆에서 권해도 지속하던 직장 생활이라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신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아이를 꼭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내는 다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난자를 채취했고, 저 또한 날짜에 맞게 정자를 채취했습니다. 두 번째 이식한 날 그 전에

임신테스트기의 노예로 살던 아내는 스트레스받기 싫다며 이번에는 테스트기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한 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물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지나 다시 찾은 난임 병원. 피를 뽑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번이 와서 피를 채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후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1,268’이라는 수치로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문자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행복하면서도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항상 임신 초기에 아이를 떠나보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3일이 지나 2차 검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더블링이라고 1차 검사의 2배가 되면 임신이 확정되는데 저희는 2차 검사에서 자그마치 ‘14,945’라는 높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찾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했고 기대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담당 선생님을 만났는데 활짝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하시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치가 높는데 혹시 쌍둥이인가요?”

“수치가 높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경우는 아기가 매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라 기쁜 소식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면서 아내가 묻더군요.

“우리 아기 태명을 뭐로 하지?”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머리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짹짹하게 잘 버텨준 대견한 우리 아기니까 ‘짹짹이’로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짹짹이는 한 주 한 주 10개

월을 잘 자라 지난 6월 24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저희 부부를 또 한 번 시험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자가 호흡이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작디작은 아이는 산소호흡기는 물론이고 기도로 호스를 넣어서 하는 치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신께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저희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6일 만에 퇴원하고 조리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렵고 험난했지만 둘에서 셋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짱짱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여성시대 가족들도 기원해 주세요. 아울러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부처럼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께도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태우며 걱정하신 우리 장모님 ‘박부임’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첫 손자와 행복한 날들 만들어가요.

어머님이 힘들게 품고 키워주신 아내 ‘김미란 박사’를 앞으로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여보 김 박사, 우리 아가랑 행복하게 잘 삽시다! 우리 서진이는 이번에 50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Letter 09

시어머니와 된장

애청자

우리 집 식구들은 유난히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고기반찬이 없어도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면 밥 한 그릇은 푹딱이다. 한동안 단골로 시켜 먹던 된장 집이 있었는데 1년 전쯤 문을 닫고 말았다. 그 후로는 여기저기서 된장을 사다 먹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이 안 난다. 가격은 더 비싼데 정작 주재료인 된장 맛이 텁텁하고 밋밋하다. 아무리 싱싱한 채소 등의 부재료를 넣어 끓여도 아이들 어릴 때 끓여 먹던 그 깊은 맛은 나지 않는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담가주시던 된장이 생각난다. 나는 28살에 결혼해 동갑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고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병행했다.

주말이 되어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된장찌개를 참 좋아한다”며 정성껏 담가놓으신 된장을 붉은 벽돌 색깔

김치통에 한가득 담아 주셨다. 하지만 당시 나는 매일 아침 출근에 쫓기며 대충 밥을 때우기 일쑤였고 그 소중한 된장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 된장 얘기를 꺼냈더니 선배 언니가 “그럼 그거 나 좀 줘 봐”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소량만을 우리 집에 남겨두고 모두 그 선배에게 가져다주었다. 얼마 후에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된장 다 먹었니?”

나는 별생각 없이 “네~ 맛있게 다 먹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다시 된장을 한 통 가득 담아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가 주신 된장이며 고추장을 회사 동료들, 친구, 지인들과 나눠 먹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편마비가 찾아왔다. 이젠 마늘장아찌를 만들거나 고추장이나 된장을 집에서 직접 담그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 후로 된장이며 고추장을 모두 돈 주고 사서 먹게 되었다. 어떤 거는 500g에 몇만 원씩 하는 것도 있다. 몸에 좋다는 재료를 다 넣었다는데 도무지 맛이 없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다는 걸 사도 돈이 아까울 뿐 그 옛날 시어머니 손맛은 나지 않는다.

신혼 시절 된장을 시댁에서 쉽게 가져와서 먹는 동안에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힘들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귀한 음식인지를. 당신 아들 먹이려고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드신 감사한 음식인 걸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겼던 시어머니의 된장. 왜 나는 그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몰랐을까? 철없던 며느리는 그저 된장이 많다고 주변에 퍼서 나눠주기에 바빴고 정작 어머님께 ‘감

사하다, 맛있다, 수고하셨다'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 드렸다.

지금 와 생각하니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살림의 고수' 시어머니가 한 달에 우리 가족이 된장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셨을 리 없다. 그런데도 별말씀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장아찌며 된장이며 고추장을 그렇게 주셨던 거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너무 철이 없었다. 시금치 무침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된장은 어땠을까.

그 시절 어머니와 지금의 나를 역지사지해 보니 참 숙연해진다. 이제 나도 며느리를 맞을 나이가 되었다. 이제 몇 년 안 가서 나에게도 며느리가 생긴다.

그 며느리에게 꼭 지키고 싶은 철칙이 있다. 나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진짜 소중함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저것 좀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나서서 챙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음식을 주더라도 한 번에 조금씩만 나눠줄 생각이다. 그게 오히려 진짜 음식의 귀함을 알게 할 거 같고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아흔이 넘은 어머니. 부처님도 울고 가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거동도 잘 못 하고 치매까지 와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는 우리 어머니.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etter 10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

김우정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저는 150일된 아기와 함께하는 초보 엄마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기 덕분에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근무했어요. 그 덕분인지 ‘임산부 호르몬? 그거 뭐야. 나는 그런 호르몬 없나 봐. 출산과 육아는 수월할 것 같은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최근 읽었던 양희은 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 네, 맞아요. 출산, 육아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수월하겠다는 용기 있는 말은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수술로 아이를 만나니 출산 후 산모이면서 환자더군요. 자연분만이라도 회복이 힘든데 수술 자리도 아프고 칼로 베어놓은 근육은 다 흐물흐물해졌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한 잠은 부

족하고 새로운 식구에 바뀐 생활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어요.

몸만 그런가요. 집에 있는 나는 자꾸 뒤쳐지고 사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이 생겼어요.

아기는 너무 예쁘고 바라만 봐도 좋은데 우울증이라니 지금 생각하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흘러내리는 눈물, 서러운 마음, 아직도 찢어져 있는 듯 아픈 배, 우는 아기.

그렇게 어려운 100일이 지나니 기적이 있더라고요. 아기와 조금 친해져서 한 60% 정도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울감에 남들은 다 한다는 매달 찍는 아기 성장 사진, 백일 등 뭘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몸을 조금 추스른 요즘 그동안 거실에 달린 홈캠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힘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홈캠에서 엄마를 봤거든요. 예쁜 아기를 보러 온다던 엄마는 아기를 바라보는 것만큼 집 한 편에 앉아 있는 저를 더 자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닫힌 방문도 자주 바라보며 아기를 안고 서성이기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출산하면 시어머니는 아기를 먼저 보고 친정엄마는 딸을 먼저 본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더군요.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의 용돈과 건강을 챙기고 잔소리를 하고 곧 사십을 바라보며 최근 출산을 해서 똑같이 딸을 가진 엄마가 된 저는 제가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앞에서는 그저 150일 된 제 딸과 다를 바 없는 어린아이더군요.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뒤에서 걱정하고 눈물 흘렸을 엄마를

생각하니 매일 ‘힘들어~ 힘들어~’ 하던 것이 떠올라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툭툭 털어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기로 했어요. 내 딸에게도 내 엄마처럼 단단한 엄마가 필요할 테니까요.

엄마, 정관순 여사님.

엄마, 지금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빠가 출근길에 듣고 있려나. 나 행복하다고 말하고 좋은 생각 더 많이 하면서 건강한 딸, 좋은 엄마가 될게요. 천사 같은 내 아기보다 나를 더 예뻐하는 엄마 아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해요. 많이 사랑해요.

아! 저와 같이 출산하고 휴직하고 계신 당당이님들. 경단녀 아니고 ‘경력 보유녀’라고 김일중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우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당장은 예쁜 생명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파이팅!

Letter 11

급성 혈액암으로 세상 떠난 딸

사일림 | 충남 부여군 홍산면

오 늘은 8월 8일 손꼽아 기다리던 선두 살 우리 딸의 생일날.
나래원 소나무 아래 한 줌의 재로 묻혀 있는 표지석 앞에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한참을 울다가 왔다.

컴퓨터 앞에서 가끔 눈이 튀어나올 듯 아플 때가 있다고 하던
딸. 여름휴가를 앞뒀다고 설레던 딸.

<며칠간 컴퓨터에서 해방되세요.>

<알았어요. 하하~>

환하게 웃던 딸과의 톡 대화다.

이번 연수만 끝나면 생일에 맞춰 내려오기로 해서 나도 기쁜 마음
으로 이것저것 준비했다.

긴 담장 아래 하양과 보라로 흐드러지게 핀 도라지꽃 옆에서 우

리 딸을 기다리던 싱싱한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부추, 옥수수.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 이번에 오면 많이 먹고 가겠다고 했던 딸.

그런 딸이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해서 회사 앞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액을 맞았는데도 차도가 없어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의사에게서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5일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에 의식을 잃었다.

급성 혈액암에 뇌출혈. 이런 경우 시간이 얼마 없고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건 고통 없이 가게 하는 처치뿐이라고 했다.

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옮겨지고 호스피스 병동 가족실에서 이틀 동안 눈 꼭 감고 자는 듯이 누워 있다가 사흘 되는 새벽녘 마지막 숨을 토했다.

벽제승화원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주 나래원 소나무 아래 표지석으로만 남은 딸.

누구에게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락하지 않았지만 많은 동료가 병실로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통곡하고 오열하는 걸 보면서 장한 우리 딸이 정말 고맙고 그렇게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기는 해도 잘 살다가는 건 맞다고 나 자신을 다독거리며 안위해 보려고도 했다.

믿기지 않는 연락을 받고 상경해서 두 눈 꼭 감고 입 다문 채 자는 듯이 누워있는 딸을 보며 살이 막 떨리고 역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혀 숨도 못 쉬게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보낸 시간을 뒤로하고 집에 왔더니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들게 움직이는 나를 보며 한숨 쉬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서라도 기운을 차려보려고 병원 치료도 받고 청심환을 먹으며 근근이 견뎠는데 이제 밥도 조금씩 먹고 있다.

겨우 오십 대 초반, 결혼 후 26년을 알콩달콩 남편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 늦게 얻은 아들을 살뜰히 챙기던 우리 딸.

양가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사돈어른이 “저울에 올리면 내 자식 셋보다도 우리 며느리 하나가 더 무거울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 내외의 생활용품을 자상하게도 챙겨줘서 엄마 화장품품 떨어질 날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보냈는데 이번에 보니 본인은 저가 화장품을 써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버지에게 더 없는 효도를 하던 딸. 시골 사시는 아빠를 동네 제일의 패셔니스타로 꾸며드리고 혹시 상경할 일 있으면 계신 동안 휴가를 내서 보살피며 온 집안의 대소사를 활기차게 이끌던 분위기 메이커.

아마 다른 사람 백 년 동안 할 일을 오십 년에 다 채워서 그만 가야 했을까?

이제 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겠지.

혼자서 외아들 키우며 살아야 할 우리 사위.

엄마를 대신해 키워준 고모를 잃은 우리 세 손녀. 오래 다닌 직장에서 어머니처럼 후배들을 보살핀 분이라고 슬피 울던 동료들. 어이없는 친척들.

우리 딸의 빈자리를 어찌 채워야 할까?

병실에서 수다를 떠는 어른들에게 십만 원을 꺼내주며 “식사들 하고 오세요. 고모랑 둘만 있고 싶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말하던 우리 큰 손녀의 의젓한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

고모의 빈자리에서 고모부에게 요리법을 알려주고 유품을 정리한 둘째 손녀. 하루 한 번씩 서울 먼 거리를 오르내렸으면서 출

근해야 한다고 다음 날 내려가던 경주의 셋째 손녀.

‘네가 조카들을 참 잘 키워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도 힘낼 테니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한 우리 딸 편한 마음으로 가도 된다’는 작별 인사를 파란 하늘 뭉게구름 속으로 띄워본다.

여러 날 병실에서 끝까지 함께해 준 가족들, 도쿄, 프랑스, 인도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언니, 누나의 마지막을 배웅해 준 사촌 형제들, 여러 번 찾아주며 같이 울어주신 고용노동부 서울센터의 센터장님과 많은 동료분들, 어찌 알고 찾아와 밥 잘 먹고 힘내라 위로해 주시는 동네 이웃들.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이 슬픔 보따리를 퐁퐁 묶어서 세월의 강물에 멀리 떠내려 보내고 싶은 심정으로 늘 그랬듯이 내 삶의 결마다 동행해 주시는 오랜 친구 여성시대에 이 숨기고 싶은 사연을 이제 넘기려 합니다.



Letter 12

친정엄마 울린 시어머니 이야기

고민정 | 세종특별시 장군면

저희 엄마는 성격이 세고 말씀하시는 게 차가운 편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으엥~” 하고 울면 바로 안아주기보다 “엄마는 우는 사람 싫어해. 울음 그치고 또박또박 얘기해” 하셨고요. 평생 우리 딸 예쁘다, 잘한다 하는 칭찬보다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식들뿐 아니라 아빠께도 얼마나 타박을 하시는지 몰라요. 두 분이 텃밭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빠는 그냥 일꾼 머슴이랍니다. 엄마가 감독님으로서 대부분의 일을 통제하고 아빠께 임무를 내리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큰일이 나거든요.

“여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지금 그게 급해요? 아 진짜! 이거부터 하라고요!”

올해 8살인 초등학교에 들어간 제 조카이자 엄마의 하나뿐인

손녀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막상 얼굴을 볼 때면 숙제는 했는지, 책은 많이 읽고 있는지 그런 호랑이 선생님 같은 말씀만 하셔서 손녀도 슬금슬금 할머니를 피하곤 합니다.

엄마의 그런 강한 성격과 말투 때문에 제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엄마의 진심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모나고 매정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상처를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혼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제 친정엄마랑 비슷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셔서 그렇게 느낀 적이 없지만 어머니 형제분들께서는 모두 어머니를 ‘독재자’라고 하신대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저 한 번 피식 웃으실 뿐이고 결혼하기 전에도 동네에서 찬 바람 쐬는 아가씨로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며느리를 본다니까 동생들이 난리야. ‘누님, 며느리 보시면 쌀쌀하게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성격이 차갑다고 며느리한테도 그럴까 봐 걱정들을 하는 거지. 하 참네! 내가 지들한테나 그러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럴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난 성격이나 말하는 게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어려운 옛날 살림에 7남매 중에 맏이었어. 동생 하나 키워 놓으면 또 동생이 나오고 그 줄줄이 사탕 같은 걸 내가 장녀라고 이끌어야 하는데 애네들이 말도 안 듣고

성격도 세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좋게 달래가면서 키우겠어. 내가 첫째라 그래.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이끌려면 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씀을 듣는데 유레카!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도 가난한 시골에서 6남매 중에 맏이셨거든요. 엄마는 가난한 장손이었던 외할아버지의 집안에 첫째로 태어났고 할머니는 큰딸에게 육아와 집안 살림을 의지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아직 어린 아기였을 엄마를 깨워 부뚜막에 불을 때게 하고 집안 살림을 시키는 건 물론 조금만 실수해도 혼을 내셨지요. 할머니 역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딸린 식구는 많고 먹을 것도 없는 시절인지라 사랑과 따뜻한 말로 엄마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셨을 거고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우리 엄마가 독재자가 된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친정집에 들른 저는 엄마랑 수다를 떨다가 그 얘기를 전했어요.

“엄마! 어머니 동생분들이 어머니한테 독재자라고 했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쌀쌀맞은 이유는 첫째 딸이라서 그러시대.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어려서부터나 커서나 동생들 건사하고 살려면 부드러울 여유가 없으셨대. 엄마, 근데 울어?”

갑자기 엄마 눈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첫째라서 내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도 사실 본인의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해할 때 본인도 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서 좀 더 부드럽게 고쳐보고 싶다가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포기하셨을 거예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은 스스로도 어찌지 못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 엄마는 그 똑같은 사정을 가진 안사돈의 ‘장녀라서 그렇다’는 분석을 들으면서 혹하고 응어리가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첫째 딸이라는 이유로 너무 일찍 많은 것을 감내하고 희생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삶.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에 부쳤을까요. 내몰리듯 어른이 되어가면서 엄마는 거칠어져야 했고 뽀족해져야 했고 차가워져야 했겠죠.

엄마의 삶과 환경이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헤아리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애뜻하고 딱한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면을 헤아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엄마 성격이 이상해’라고만 했던 점이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올리셨고 두 분은 마음속으로 깊이 친애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셨어요. 양가 어머니들은 저희 부부에게 무언가를 챙겨주실 때마다 서로 안사돈 뭉까지 챙겨 주십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바리바리 반찬도 바리바리 싸주세요. 사돈이라는 가깝고도 먼 사이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두 분이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힘든 시절 장녀로서 살아 내신 위대한 여성 두 분!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께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보살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생을 이해하고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큰딸, 만딸 여러분! 모진 세월 속에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어요. 장하십니다!

Letter 13

베트남 한 달 살기

김덕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덕 다 지친다. 온몸이 파김치다. 장사도 잘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쉬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세계 각 나라 한 달 살기를 하기로 했잖소. 여행연습으로 이번에 한 번 나가볼까?”

아내는 적극 찬성했다. 돈을 추가로 지출할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쓰는 생활비 안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은 물가가 저렴해야 하고 비행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한 달 생활비 안에서 충당이 가능하다.

“우리 베트남 갈까? 다낭도 좋고 사파도 좋고…”

“우리 나트랑 가요. 나트랑이 경기도 나짱시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내도 모임에서 들었나 보다. 다낭이 그렇다더니 이제는 나트

랑까지도 한국인들 여행 1순위가 된 모양이다.

모든 예약과 결정은 아내에게 맡겼다. 나는 일해야 하니 바빠서 그렇고 내가 쓴 숙소를 예약했다가 현지에 갔을 때 짜증 낼 수도 있는데 아내가 직접 예약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트랑, 달랏, 무이네 등 총 다섯 곳에서 머물렀다. 나트랑은 도시가 커서 맛집이 많고 해변이 도심에 있어 즐기기가 좋다. 그런데 너무 덥다. 달랏은 시원해서 겨울인가 싶을 정도다. 맛집도 많고 다 좋은데 역시나 무질서한 교통과 보행권이 너무 박탈된 분위기는 좀 아쉽다. 무이네는 사람이 별로 없어 평온하고 해변도 가까워 조용히 힐링하기 안성맞춤이다. 다만 시내가 멀어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오토바이를 타기에는 좋은 곳이다.

한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장기 숙박을 하면 훨씬 저렴하지만 일주일씩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한 도시 일주일 살기’의 장점이 훨씬 크다. 다양한 곳을 둘러보고 여러 현지인의 삶을 접하며 지루할 틈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단점은 장기 숙박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것.

애초 목표는 ‘한국에서 한 달 사용할 생활비로 베트남 한 달 살기’였다. 순수 생활비만 따지면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가능하지만 항공운임과 숙박비가 들어가면 결국 총액은 비슷해진다.

처음에는 하루 두 끼만 먹으려 했지만 호텔 조식의 유혹 앞에 계획은 무너졌다. 결국 하루 한 끼는 맛집 투어, 나머지는 호텔 조식이나 조식이 없는 곳에서는 직접 해 먹었다. 교통은 택시, 오토바이, 도보를 이용했는데 택시 요금이 워낙 저렴해 큰 부담이 없었다.

한 달 동안 쓴 총지출액은 355만 원이 들었다. 숙박비 100만 원, 항공비 80만 원, 생활비 175만 원으로 하루 평균 5만 8천3백 원을 썼다. 한국의 한 달 생활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소감부터 말하자면 나트랑은 너무 덥고 교통 무질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다음 한 달 살기는 해발고도 1,000미터 이상이면서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도전할 생각이다. 지극히 현지인 모드로 생활한다면 부부 기준 월 100만 원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여행은 관광과 외식이 많아 예산을 조금 초과했다.

은퇴 후 ‘한 달 살기’를 갔다면 일에 대한 압박 없이 여유로웠을 텐데 일을 잠시 놓고 떠난 탓에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또 책을 더 챙겨 오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그저 놀기만 하는 ‘한 달 살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진다.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시간이 더 보람 있다.

우리는 ‘제주 한 달 살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해외 한 달 살기’에 도전했다. 나의 최종 버킷리스트는 ‘세계 각 나라 한 달 살기’다. 세부적으로는 ‘각 나라 각 도시 일주일 살기’가 되겠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번역, 지도, 예약... 언어의 벽은 이미 무너졌다. 은퇴 후 해외 각 나라 한 달 살기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나라든 나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하는 바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은퇴 후 할 일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며 소일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가이기는 가치있는 이 세상

김경득 |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어이? 우유팩?” 하고 부르면

“네 ~~~” 하고 뛰어간다.

사우나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우유팩을 수거해서,

헝구고 가져와 잘 말린후 주민센터에 가져간다.

1kg에 휴지 한롤을 받는다.

불사시간열도 가능하다.

휴지나 불사시간보다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실천중이다.

우유팩, 두유팩 안에 코팅되어 있는 음료팩은 플라스틱으로

컨팅디어 아주 해당된다.

좋은 재료를 만들어진 우유팩이 다시 좋은 휴지로
만들어 질수 있도록 실천하자.

사우나 안에서 우유팩을 수시로 수거하는 나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갖게 했다.

슬쩍 물어보면 "우유팩 11명 만났는데 20년된 나무
몇백그루가 잘려나간대요."

다음세대를 위해서 작은실천을 하는 중입니다.

"개구이 헝구고 말려서 주민센터 갖다주기 병거렸으면 사우나
오실때 저를 주셔도 됩니다."

"아라트마다 수거함 따로 있음 그속에 넣으시면 돼요."

사우나 매점언니는 우유팩 씻어서 말려서 정리해서 주신다.

감사합니다. 귀환손님들!

이렇게 하다보니 나만 지나가면 "어이! 우유팩!"

하면서 우유팩이 모인다.

등비 커피숍에도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녁때 두바퀴씩 돌아 수거해온 우유팩을 헝구고
 마신다.

우리집 거실은 어느새 우유팩판이 되었다.

"그래해서 하루 얼마버냐"고 술객 물는이들도 있다.

"아픈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중입니다"하고 웃는다.

개수대에 물고기도 세개가 놓여있다

애벌설거지물. 중간설거지물. 완료설거지물 많은 우유팩

헝글래도 이물로 사용중이다

여기저기 모아서 버리는 개까한 휴지도 개수대 근처에서

음식물 닦아서 버리면 참 좋다.

물티슈도 몇번씩 더 사용해서 버리면 좋다.

사우나에서 "어이 우유팩"으로 통하면서 그나마 흥분이
 되었다

언니들이, 동생들이 우유팩을 모아 국민센터에 갖다주는

번거움을, 기꺼이 동참하는 분들을 뵙니다.

"참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함께 한 분들은 좋은
할머니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고 임자척을 해준다.
비닐 뽁뽁이도 잘 정리해서 우체국에 갖다주면 좋다.
택배보낼때 다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잘 살펴보면 두세번씩 다시 사용가능한 것들이 그냥
버려진다.

한번 더 눈여겨보고 꼭 필요한 곳에 재 사용될수
있도록 작은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유팩 정리해서 주민센터 갖다주고 나오나가서
우유팩 수거해 와야겠다.

같이 가는 가치있는 이세상?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성시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6743] 강화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힘과 뜻을 모아 가꾼 해바라기입니다. 만이천 평이나 됩니다. 난정 해바라기 축제 많이들 보러 오세요.



[9311] 밭에서 여성시대 들으며 풀을 뽑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방송이나 물어서 여성시대라고 했습니다. 요즘 참깨 베어 말리고 있어요.



[5158] 새벽 5시부터 고추 따서 손질하느라 땀이 줄줄 흐르는데, 부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손만 움직이십니다.



[8532] 의성 전굴련입니다.



[4528] 정남진 산속 벌목 현장 나무꾼입니다. 라디오가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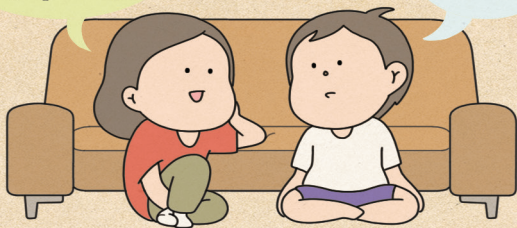
여성시대 가족 강영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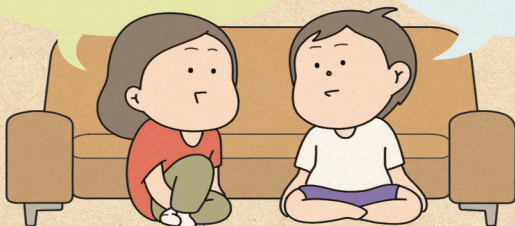
여보 요즘
어싱 (earthing)이
유행이래.

어싱?
그게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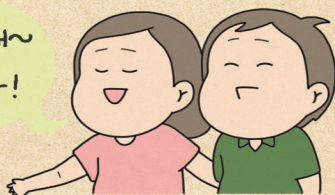


만발로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 거지.
우리 내일 해수욕장이나 가볼까?

그래 좋지.
가까운 데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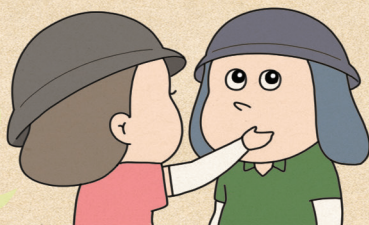
바다 냄새~
너무 좋다!



아 시원하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날씨에
저희 부부는 맨발걷기 준비단계에 나섰습니다.

얼굴 이쪽으로
돌려봐 봐.
선크림 좀 바르게.



팔 도끼,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철통보안을 하고
본격 맨발걷기에 돌입하려는데

우리 신발은 어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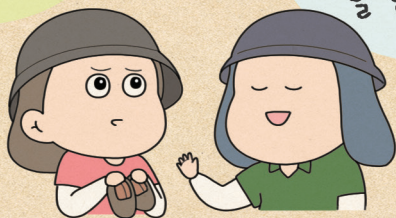
신발은 차에 두고
처음부터 맨발로 가자.

걷는 내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한낮이라 모래
엄청 뜨거울 텐데?

에이 뜨거워봤자지.
그리고 뜨거우면 바닷물에
발 담그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저는



TV에서 본 사막 도아뱅처럼
불쌍사나운 꼴을 추며 걸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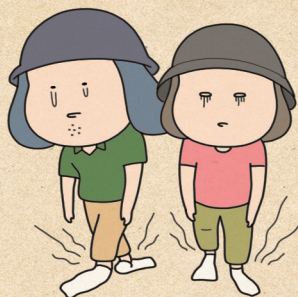
결국 뜨거움을 이기지 못한 저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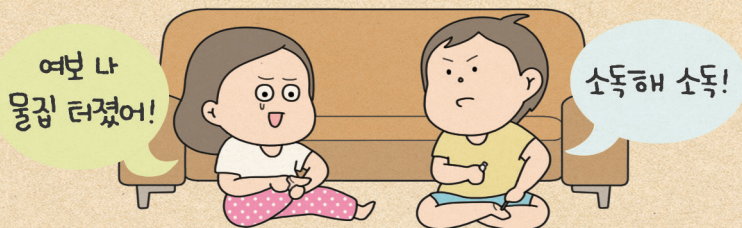
빨리 걸었다가

뒤꿈치로만 걸었다가

급기야는 팔 토시를 발에 둘둘 감아
모래사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저희는



여보 나
물집 터졌어!

소독해 소독!

일주일간 무척이나 고생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아파텔을 탄생시킨 건축 명가



IBK기업은행 염창동지점 거래고객

(주)대명이십일 김명희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한 아파텔을
처음 시장에 도입한 종합건설사 대명이십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품질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고객들의 니즈와 시장 상황에 맞춰 新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명이십일은 2004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다. 현재 오피스텔, 아파텔 등 민간 건축 사업 및 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공사, 시설물 유지 공사 등 크고 작은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브랜드 ‘투웨니퍼스트’와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투웨니퍼스트 밸리’를 런칭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파텔 브랜드 ‘투웨니

퍼스트’는 믿을 수 있는 시공 품질을 바탕으로 높은 전용률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통해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대명이십일은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아파텔 업계의 선두 주자로 무엇보다 원룸과 투룸 모두 3베이 구조의 특화된 평면이 가장 큰 강점이다. 3베이 구조의 기본 평면은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다른 건설사에서 평면을 카피할 만큼 뛰어난 구조로 인정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인 '투웨니퍼스트 밸리'도 대명이십일의 대표 브랜드다.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와 투웨니퍼스트 오피스텔의 노하우를 기숙사에 접목하여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설계를 통해 기존의 공장형 사무실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항상 직원들에게 내가 직접 거주한다고 생각하고 집을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서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게 평면을 구성하고 트렌드와도 잘 어우러지도록 설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명이십일은 업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이고 신기술 개발을 독려한다. 현재 대명이십일은 건축 관련 특허 및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사후 서비스도 대명이십일의 자랑이다. 준공 후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명이십일은 2015년 중소기업품질경영대상을 시작으로 2017년 중소기업 고객감동 부문



대상, 2018년 중소기업기업부 장관상, 2020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고객감동 부문 수상, 2023년 국민브랜드대상 오피스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김명희 대표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든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사소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복지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일 년 중 언제라도 회사와 연계된 콘도를 무상

제공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덕분에 직원들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다.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직원들과 함께 극복하여 내실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 보니 안전에 가장 신경 쓰고 있어요. 원칙주의,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염창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은 “대명이십일은 대표님이 현장에서 직접 일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내실 있

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건설 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IBK기업은행과 상생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염창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왼쪽)과 (주)대명이십일 김명희 대표

! (주)대명이십일 김명희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내가 사는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설계하라.
2. 신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3. 믿을 수 있는 시공,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라.

(주)대명이십일

대 표 김명희

전 화 02-2608-7330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1길 35, 14층

홈페이지 <https://www.daemyung21.com/>



K-떡볶이, 세계에서 통하다



IBK기업은행 대구지점 거래고객

(주)샘초롱 차훈일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한국인들 최애 분식 떡볶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멀리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존성을 높이고

떡의 식감을 쫄깃하게 살리는 기술이 필수!

(주)샘초롱은 실온 건조 떡볶이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 K-푸드를 알리고 있다.

샘초롱은 급식 식자재 및 실온 떡볶이를 제조·유통하는 회사다. 차훈일 대표는 우연히 지인의 식품유통회사에 방문했다가 미래 식품 사업의 비전과 성장성을 보고 다니던 레미콘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업종에 뛰어들었다. 1996년 창업 초기에는 작은 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유통을 주로 하였으나 대형마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반 유통 사업을 줄이고 학교단체급

식사업에 눈을 돌렸다. 1998년 당시에는 학교 급식 시행 초기라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이후 점점 급식이 확대되면서 물량이 늘어났고 2004년도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제조를 시작하게 된다. 샘초롱은 전국 유통망을 바탕으로 급식 식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단체급식 시장에 메이저 회사들이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고 학생 수



가 줄어들면서 급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때 차훈일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실온 건조 떡볶이 개발에 나섰다.

“지금은 떡볶이가 주력사업이 되었습니다. 2017년 실온 유통이 가능한 떡을 개발하여 보존성을 높이면서도 떡의 식감을 쫄득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요리궁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고 즉석컵떡볶이 및 컵떡국, 컵라볶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샘초롱의 자체 브랜드 요리궁리 제품은 14개월간 실온 보관이 가능하

고 샘초롱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생산되는 떡의 복원력이 뛰어나 식감이 좋다. 특히 떡볶이 떡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 부드럽고 소스가 잘 배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시한 자체발열 떡볶이는 물 500cc만 있으면 영하 40도에서도 자체발열을 통해 조리 섭취가 가능하여 천재지변이나 전쟁 시 전투식량 및 비상식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샘초롱은 고춧가루와 통깨, 곡물가루, 잡곡 등을 생산하는 ‘가을애’ 나물류, 두부류, 면류, 떡류 등을 생산하는 ‘머그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샘초롱은 식품제조 회사인 만큼 위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 생산 시설이 FDA 및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대장균 등 10여 종의 미생물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을 위해 상당 부분 설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인 상태로 생산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항상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며 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샘초롱은 2018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 한국 고유의 맛, 조리의 간편성, 보관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 해외에서 인정받는 K-푸드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IBK기업은행 대구지점 김치군 지점장은 “샘초롱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기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10여 개국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K-푸드를 알리고 있다”며 “2014년 현재 위치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대구 지점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



는 가족 같은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샘초롱은 기술혁신, 경영혁신 기업으로서 떡류, 면류, 기타가공품에 해썹(HACCP)과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하였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샘초롱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대구지점 김치곤 지점장(왼쪽)과 (주)샘초롱 차훈일 대표

❗ (주)샘초롱 차훈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2. 위생을 철저히 하라.
3.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라.

(주)샘초롱

대표 차훈일
전화 080-311-1420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2길 30
홈페이지 <http://semchorong.co.kr/>

코너 속 편지

여자는 모른다

81 어디서 웃어야 하나

84 깜짝 이벤트

88 소중한 숨구멍

93 남자를 몰라

96 다급한 전화

99 할 말은 한다

사랑 사랑 사랑

102 말할 수 없는 진실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어디서 웃어야 하나

애청자

얼마 전 부부 동반 모임으로 주꾸미집에 갔습니다.

“우왕~ 맛있겠당~”

“여보, 여기 여기 이것도 좀 먹어봐. 맛있어? 안 매워? 물 줄까?”

이런 달달한 스윗가이, 이런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아~ 이 주꾸미에는 말이죠. 타우린과 오메가3 또 불포화지방산
이런 게 많아서 우리 두뇌 회전에 좋고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좋고
또 그 뭐냐 고혈압, 뇌졸중에~ 또~”

이런 약장사 스타일, 아니 아니 척척박사님도 제 남편은 아닙니다.

“뭐해 여보, 빨리 먹어요.”

“아이~ 나는 말이야. 주꾸미보다는 낙지가 좋더라고. 알지?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스테미너 식품이잖아. 으하하하.”

이런 테토남, 마초남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남자는요. 밥에 참기름을 쓱 두르면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음~ 다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뭔지 아냐?”

다들 밥 먹다 말고 '웬 퀴즈?' 하는 얼굴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애써 움찔거리는 입꼬리를 감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기름! 이름부터가 참~ 기름! 하하하~”

순간 식당엔 찬바람이 뽕하며 저 멀리 옆 테이블에서도 막 짜려 보더라고요.

“남아, 그냥 드세요. 더 말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나름 눈치를 줍니다.

“나 뜨거운 거 잘 못 먹잖아. 이거 말하고 먹을게. 자자~ 다들 먹으면서 들어요. 자고로 이 ‘김’ 김 있잖아. 이 ‘김’은 구우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애타는 제 심정도 모른 채 남편은 밥 위에 김 가루를 뿌리며 신이 났고 한 번 당한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보단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황급히 깻잎쌈을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며 “여보, 얘기 그만 하고 밥! 밥 먹으라니까.” 한사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입에 든 쌈을 곳곳이 씹으며 이번에도 수요 없는 공급을 날렸습니다.

“고마워. 이 ‘김’을 구우면 안 되는 이유! 그건 말이야. 기미 주근깨! 하하하~”

도통 뭘 말인지도 모르겠고 웃기지도 않고 그래도 내 남편이니 까 눈치껏 ‘하하하~’ 억지웃음을 조금 지어줬더니 남편은 신이 나서 “웃기지? 그치? 김을 구우면 김이 죽으니깐. 기미 주근깨.” 이러면서

두 번 세 번 분위기를 아주 급속냉각 다 얼려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모임에서 “세상에서 젤 잔인한 비빔밥은? 산채비빔밥~ 우하하하” 이거 했을 때보단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한데 친구들은 “저기 사장님, 여기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아예 안 틀어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니 남편 왜 저러냐? 너 같이 살기 힘들겠다. 괜찮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러니까요. 저요 더는 남편이랑 모임 가기가 싫어요. 가족 모임이든 게 모임이든 남편이 던지는 찔렁한 아재 개그 때문에 저만 안절부절못한 게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그나마 더운 여름엔 ‘찔렁하니까 다들 시원하고 좋지? 하하하~’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기는데 가을 오고 겨울 오면 미안해서 어쩐대요.

종종 만나는 사촌 형부는 뮤지컬, 미술관, 전시 이런 공연 얘기를 아주 감성 넘치게 잘해서 참 지적이고 근사해 보이던데 왜 제 남편은 입만 열면 그렇게 찔렁한 아재 개그를 할까요?

마음으론 ‘존중하자 존중하자 남편 취향도 취향이다!’ 다짐하는데 더는 웃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남편의 아재 개그 대체 어디가 웃긴 걸까요?

여자는 모른다

깜짝 이벤트

애청자

저는 결혼 10년 차 되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로망은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 하는 순간 아내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놀란 아내를 안아주며 뿌듯하게 웃는 포옹 신으로 엔딩! 조금 신과 같지만 전 이걸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의 축! 아내는 별명이 ‘셜록 홈즈’일 정도로 눈치가 빠릅니다.

결혼 전에도 제가 제 일생일대 최대의 비밀 프로젝트로 비싼 레스토랑 예약하고 반지 숨기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꽃가루 뿌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아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음~ 분위기 보니까 오늘 프리포즈하려고 하는구나? 왜 이렇게 늦게 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지도 샀어? 설마 없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원래 준비한 계획은 아내와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너랑 먹고 싶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서 무릎을 탁! 꿇으면 친구들이 튀어나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놀란 아내가 “이게 다 뭐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줄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좋아요~” 대답하면 친구들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꽃가루 더 뿌리고 저와 아내 포옹! 키야! 이런 멋진 엔딩이었는데 아내의 ‘프러포즈하려고?’ 이 한마디에 제가 그냥 멘붕. “아,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그러니까…” 버벅버벅 거리는 제 모습에 숨어있던 친구들은 웃음이 터졌고 “어? 친구들 목소리 들린다. 다 불렀어?” 아내가 알아서 친구들까지 호출.

내 생애 첫 이벤트는 엉망진창 완전 코미디로 끝이 났더랬죠. 나중에 아내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물으니까 평소 안 가던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을 때부터 바로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깨달음을 얻은 저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결혼 후에도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풍선을 방 안 가득 채우고 아내를 놀라게 해 줄 마음에 집안 불을 모두 끄고 거실 소파 뒤에 숨어서 두근두근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놀란 아내의 표정을 훑쳐보려고 소파 옆에서 뺨뚫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고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어?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고무 냄새 같은데.”

그리곤 신발을 벗으며 개코 본능으로 쿵쿵대더니 “쿵쿵~ 이거 풍선 냄새 같은데? 뭐야? 자기! 나 몰래 또 이벤트 준비한 거야?”

풍선이 깔려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신발장에서부터 알더라고요. 기운이 쪽 빠진 채로 소파 뒤에서 기어나가며 물었습

니다.

“당신, 어떻게 벌써 알았어?”

“맞았구나? 나 개코잖아. 후각 하나는 내가 우리나라 1등일 걸?
게다가 풍선 냄새는 고무라서 바로 알지.”

‘하~ 나는 어찌자고 내 여자가 개코인 것도 몰랐을까. 환기라도
좀 시킬걸. 풍선을 조금만 준비할걸.’

자책과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
어요. 이번엔 기필코 아내를 감동시키리라.

다음 해에도 저의 깜짝이벤트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번
엔 케이크가 문제였네요. 아내 몰래 특별한 케이크를 주문 제작
해서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아내가 차에 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쿵쿵~ 뭐지? 차에서 왜 이렇게 단내가 나?”고 말합니다.

“어? 아~ 그게 내가 음~ 방향제. 그래 이번에 내가 그거 바꿨다.
냄새 어때, 좋지?”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도 애드리브가 된다고 이번에는 제가 생
각해도 기가 막히게 위기를 모면했다. 아내를 잘 속였다고 생각했
는데 “아 그래? 나는 오늘이 또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당신이 나
몰래 달콤한 케이크라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아쉽네. 케이크는 없
는 거지? 내가 저기 트렁크 이런 데 안 열어봐도 되는 거지?” 이러
면서 또 바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쏘냐! 그다음 해엔 ‘냄새 없는’ 손편지로 도전했
습니다. 밤새 정성껏 쓴 편지를 아내 출근 가방에 몰래 넣어두고
지하철 안에서 아내가 읽다가 감동의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모습
을 상상했는데 옹? 이게 뭐죠? 평소에 아내가 들고 다니던 출근
가방 그러니까 저의 손편지가 들어있는 아내의 가방이 아내 떠난

방구석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 당신 원래 들던 가방 그거 오늘은 왜 안 들고 갔어?”

“아 그거? 어제 비 와서 더러워져서. 왜? 가방에 또 선물 넣어 났어? 아이고, 미안. 이따 집에 가서 볼게.”

그렇게 삼세번 넘게 도전한 손편지 이벤트도 팽! 그래도 칠전팔 기니까 저는 그다음 해에도 또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을 베란다에 몰래 숨겨놓고 기념일 아침에 “잔!”하며 내밀 계획이었죠. 그런데 명탐정 홈즈 뺨치는 아내가 벌써 며칠 전에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보니까 당신 여자 가방 검색하는 거 같던데 나 그 브랜드 안 좋아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링크 하나 보내도 돼? 이왕 사줄 거면 나 거기 걸로 사주라.”

제가 황급히 “아, 그거는 내가 회사 선배 부탁으로 보고 있던 거야”라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웃으며 “아~ 그럼 더 다행이네. 내 선물은 지금 보낸 가방 그걸로 해줘.”

늘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견고 뛰고 날아도 아내는 늘 제 머리 위 우주 상공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비록 ‘서프라이즈’는 매번 실패하지만 아내는 제가 준비한 선물과 마음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딱 한 번쯤은 아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을 보고 싶은데 눈치 빠른 아내를 상대로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곧 있으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번엔 성공할까요? 매번 걸려서 실망했지만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저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서프라이즈!

여자는 모른다

소중한 숨구멍

애청자

저는 40대, 두 아이 아빠이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요. 아침 8시 10분 사람들로 꽉 찬 지옥철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제 마음도 닫힙니다.

‘오늘은 보고서가 몇 번이나 되돌아올까. 거래처는 또 어떤 말을 꺼낼까. 부장님은 왜 늘 ‘음, 그 정도로는 아쉽지. 다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까.’

제 머릿속은 회사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세 번쯤 회의를 끝내고 지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 거울 속 제 얼굴은 그러저럭 밝은 척하지만 눈 밑 그림자는 숨길 수가 없지요.

“여기 이 표는 왜 이래? 핵심이 안 살아나잖아.”

“아, 네. 그러면 빼고… 아 근데 부장님은 이 표가 핵심이라고…”

“그건 부장님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회사에서 저는 가운데 낀 사람, 좋은 말로 팀의 ‘허리’이고 현실은 눈치의 중심에 선 사람이죠. 마감에 쫓겨서 일하다 보면 숫자가 엇갈리고 계약 조건이 갑자기 바뀌고 신입이 실수한 일도 제 이름으로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후배의 목소리에 저는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체크리스트 만들어보자.”

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퇴근 버튼을 누르면 제 마음은 거의 방전입니다. 그때 저절로 손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 휴대폰 속 작은 게임 아이콘! 그 작은 게임 하나가 제겐 소중한 취미이자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를 수 있는 탈출구! 제가 제 속도를 찾을 수 있는 잠깐의 통로이지요. 하지만 그 문에 닿기까지 아직 제가 해야 할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아빠~”

다섯 살 딸아이가 달려와 매달리고 두 살 막내가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깁니다.

“아빠, 나 오늘 토끼 스티커 붙이는 날이야. 이거 붙여 줘.”

“아빠, 나 업어! 업어!”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번갈아 안고 업고 가방은 현관에 밀어두고 발뒤꿈치로 현관문을 닫습니다. 저 멀리 부엌에서 사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도 들리네요.

“여보, 국간장 좀 꺼내줘요. 젓가락 서랍 옆에.”

재빨리 손을 씻고 국간장 채기고 물컵 닦고 아이들 손가락 준비하고. 밥을 먹이는 동안 딸아이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씬 없이 쏟아냅니다.

“아빠, 친구가 내 장난감 만졌어. 근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 난, 어른이니까.”

“우와~ 우리 딸 멋지네. 벌써 어른이구나.”

회사에서 굳어 있던 어깨가 집에서 풀리는 줄 알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쌓여있는 접시의 산, 컵의 숲, 젓병의 협곡. 아내가 수건을 짜며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둘이 하니까 금방 하네. 고마워.”

누군가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10시. 불 꺼진 방에서 딸아이의 숨소리가 얕아졌다 깊어졌다 하면 제 손가락은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게임’ 아이콘을 터치하기란 쉽지 않죠. 왜냐 또다시 들려오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여보, 또 게임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아내는 팔레를 개며 제 등을 흘끗 찌려봅니다. 그 시선이 부담되지만 사실은 고맙습니다. 그게 다 날 걱정해 주는 ‘내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한 판만. 진짜 딱 한 판만.”

게임 속에서는 왠지 용기가 납니다. 회사에서는 틀리면 ‘결재 반려’지만 여기서는 ‘다시 도전’ 버튼 하나면 됩니다. 보스에게 쓰러져도 처음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곳.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 그날도 밤에 게임하고 있는데 아내가 물을 마시러 나오다 제 옆에 쭈그려 앉더군요.

“어후! 깜짝이야. 여보, 왜 왜?”

저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폰을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나는 요즘 여유가 없어. 낮에는 애, 밤에는 집안일, 주말에는 장 보기. 그래서 밤 열한 시 넘어 당신이 휴대폰 붙잡고 있으면 나만 계속 일하는 기분이 들어. 나도 잠들기 전 15분, 그냥 가만히 있고 싶거든.”

순간 가슴이 뭔가에 탁 막혔습니다. 내가 ‘자유’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나만 일하는 시간’으로 느껴지고 있단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음~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애들 재우고 설거지 같이하고 딱 20분만 당신은 눈에 온점질하고 쉬어. 나는 그동안만 게임할게. 타 이머 맞추고 알람 올리면 바로 끝 거야. ‘한 판만 더’ 이건 금지어로 하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또 협상하네. 그래 좋아~”

그렇게 타이머를 맞추는 의식이 생기고 나서 신기하게도 저는 그 20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집중하게 되고 끝나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됐지요. 알람 소리와 함께 휴대폰을 내려놓는 제 손을 보며 아내는 말합니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보상이 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이 작은 규칙 하나가 회사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엔 퇴근 30분 전부터 집중이 잘 안됐어요. ‘집에 가면 또 게임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이러면서 폰을 만지작만지작 눈치 보여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마음만 들떠서 일에 집중을 못 했더랬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서 완전한 20분이 보장되니 오히려 퇴근 전 30분이 제일 즐겁고 집중이 잘 됩니다.

“김 과장, 요즘은 마감 전에 일을 더 잘하는 거 같아.”

“그럴 리가요. 저는 늘 잘합니다. 부장님!”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집의 질서가 회사의 리듬까지 바꿨고 주말도 달라졌어요.

토요일 오후는 가족 시간. 저녁엔 아내와 저, 각자의 자유시간 1시간씩. 그 한 시간을 기다리며 낮에는 더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사람마다 숨 쉴 구멍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요. 제겐 휴대폰 게임이 숨구멍이자 산소입니다. 집이라는 큰 폐가 제대로 숨을 쉬려면 작은 구멍들이 서로를 막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린 시간과 순서를 정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고 알람이 울리면 옷으며 폰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저는 20분 알람이 울리면 폰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해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의 소중한 숨구멍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냅니다.

여자는 모른다

남자를 몰라

애청자

우리 집엔 아내와 두 딸 이렇게 세 명의 여자가 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집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준 어버이날 편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저를 위해 항상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엄마의 사랑이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도 한참을 어찌고 저찌고 블라블라블라~) 엄마 저를 사랑해 주고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감사합니다~>

개알 같은 글씨로 편지지 가득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편지 끝에 ‘아빠도 감사합니다’ 아빠에 대한 고마움은 단 8자로 끝이 났다. 편지를 읽고 혹시나 뒷장에 뭐가 더 있겠지 하고 편지지를

뒤집어보고 봉투 안에 내 거는 따로 있지 않을까 탈탈 털어도 봤지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아내랑 싸우기라도 하면 두 딸은 간신배처럼 아내의 오른 팔 왼팔에 찰싹 붙어서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빠가 잘못 했네~” “맞아~ 엄마 속상하게 아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죽어라고 엄마 편만 든다. 내가 축구 좀 보려고 리모컨을 들면 아내와 딸들은 드라마 봐야 한다고 리모컨을 뺏어가서는 “어머머~ 방금 선재 웃는 거 봤어?” “깹! 너무 잘 생겼다 진짜~ 그치? 엄마~” “엄마~ 우리 반에는 왜 선재 닮은 애가 없어?” 셋이 뭉쳐 앉아서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보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게 뭐가 잘생겼냐?” 한마디 했자간 셋이 동시에 뱀새눈을 하고 날 아주 무섭게 쬈어본다.

가족들과 온천에 가도 나는 혼자니까 대화 상대도 없고 사우나를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한 시간을 넘기기 힘들어서 일찌감치 밖에 나와 있는데 아내와 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다. 한 세 시간이 지나야 온몸이 쭈글쭈글한 채로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깔 웃으면서 온천에서 나온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아내와 딸들을 입구 가까운 곳에 먼저 내려주고 나는 주차를 마친 뒤 따라나서는데 매번 치사하게 자기 들끼리 팔짱 끼고 마트로 먼저 올라간다. 뒤늦게 내가 합류해서 같이 장을 본다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 아내가 “우리 그릭 요거트 살까?” 물으면 딸들은 좋다고 맛장구를 쳐주면서 내가 “우리 대용량 포테이토칩 살까?” 하면 “안 돼!” “당신 살찐다니까!” 이러면서 도끼눈을 뜨고 반대만 한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실수로 올려놓은 채 화장실에서 나

오면 동시에 “여보!” “아빠!” 아내와 딸들의 잔소리 응단 폭격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렇게 영혼의 단짝인 모녀 사이도 가끔 싸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을 내 편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 나는 속상해서 투덜대는 둘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한쪽이 잘못했다고 편을 들어주며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 노력했건만 “당신이 판사야?” “아빠는 왜 공감을 안 해 줘?” 이러면서 또 불똥이 나에게 튀었다.

그래서 다음엔 황희 정승의 마음으로 “그래~ 니 말도 옳고 니 말도 옳다”라고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둘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기회가 찾아왔다. 막내딸이 옷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고 있는 상황. 아내는 비싼 옷이 있는데 왜 사냐며 반대하고 딸은 비싸하지 않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나는 둘 사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판세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다. 딸에게 “우리 딸은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라고 먼저 환심을 산 후 “근데 엄마 말처럼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해~”라고 적당히 아내의 편도 들었건만 또다시 나에게 돌아온 건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패션에 대해 모르잖아.” “아이고, 물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골프채를 또 샀어?” 둘이 또 합심해서 나한테 잔소리를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빠 이상하다, 그치?” “응 이상해~” 둘이 언제 싸웠냐는 듯 이상한 결론을 내며 급속도로 사이가 좋아졌다.

왜 딸들은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랑만 놀고 엄마 편만 드는 걸까? 치사하고 서러워서 오늘도 난 아내를 조른다.

“여보~ 나도 아들 한 명만 낳아도!”

여자는 모른다

다급한 전화

애청자

우리 회사에서는 매달 25일이면 소소하게 회식 자리가 생깁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자유에 목마른 유부남들 몇몇이.

“오늘 한잔하셔야죠?”

“아, 그럼 요 앞에 뿔때기 잘하는 집 새로 생겼더라.”

“그래요? 저는 복어로 갈까 했는데 요번 달은 우리 수당이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매달 25일, 그날은 우리 회사 월급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부남은 월급 외에 들어오는 식대나 주유비 같은 수당은 다들 조금씩 비자금으로 챙겨두잖아요. 우리 팀 유부남들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월급날 저녁엔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내 월급에서 꾸친 돈으로 소주 한잔씩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을 갔다가 일이 터졌습

니다. 팀 후배가 산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119로 병원 이송해서 수술까지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지요.

잠시 이 후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와 아주 절친한 이 후배는 아내 몰래 월급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비자금 일부를 챙긴 다음 회사 이름으로 다시 와이프에게 송금하는 아주 치밀한 녀석입니다. 그 부인은 진짜 회사에서 바로 월급이 들어오는 줄 아는 아주 순진한 분이구요.

다시 병원 얘기로 돌아와서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돼서 저희는 월요일 출근해서 그 후배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온 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 병원에서 수술 잘 끝났다는 얘기만 듣고 중환자실 옮긴 뒤로는 통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그 녀석 아직 얘기도 어리잖아? 초등학교는 갔나?”

“아직, 내년이 입학일 거야 아마.”

“아~ 진짜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다들 그렇게 회사에서 불안해하며 후배를 걱정하던 그때 그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너 괜찮나? 몸은 좀 어때?”

“형님... 으... 어... 제가 머리 수술을 해서... 말이 좀 어눌해요. 기운도 없고...”

“얌마 나는 그날 다시는 네 목소리 못 듣는 줄 알았어. 이제 정신 좀 들어? 진짜 괜찮은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너 지금 말하기 힘들지? 아픈데 얼른 쉬어. 전화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너 중환자실 나오면 우리가 병문안 갈게.”

“으… 형 끊지 마… 부…탁 좀 할게…”

말하기도 힘들만큼 지쳐 보였던 후배는 다급하게 저를 불러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으… 오늘 월급날이잖아.”

“어, 그래서? 얘기해.”

“내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 오피케 카드 있거든.”

“어떻게 카드? 그게 뭐야?”

“아니 OTP 카드.”

“어어 오티피 카드.”

“그거 비밀번호가…”

그렇게 후배는 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제수씨 계좌번호,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뒤에는 팀 전체가 와서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고요. 후배는 수술 다음날이라 아직 정신도 혼미하고 입안을 크게 다쳐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평소 같으면 2분이면 끝날 대화가 이미 4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다 됐다. 이제 310만 원 회사 이름으로 제수씨한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자 마지막 후배의 대답. 그 대답에 우리 팀 모두가 이마를 탁! 후배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러면 와이프가 의심하니까 310만 300원으로 보내줘.”

끝까지 치밀하고 완벽하게 비자금을 관리하던 녀석. 다행히 그 후배는 지금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저희는 다급했던 그날의 전화를 안주 삼아 요즘도 월급날마다 유부남끼리 비자금으로 소주 한잔 기울이며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할 말은 한다

애청자

마나님! 내가 오늘은 큰맘 먹고 경고장을 날리겠소. 잘 들으시오!
에헴~ 우선 첫 번째 주문!

내 앞으로 택배가 오면 무작정 개봉 좀 하지 마시오! 그 택배 중에는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것들도 있소. 예를 들면 특수 영양제 같은 건데 그건 다 내가 마나님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난 죽는 그 순간까지 마나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싶다오. 하지만 내 몸이 늙었으니 몸에 좋다는 비타민도 먹어봐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에헴~ 두 번째 주문!

제발 내 물건을 말도 없이 옮겨 놓지 마시오! 아침에 보려고 잠깐 둔 물건을 당신이 말도 없이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 순식간에 내 머리는 돌아버리고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렸나?’ 의심하고 자책을 한 단 말이오. 특히 내 신문! 그거 좀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미쳐 읽지



못한 기사며 사설을 내 판에는 시간 나는 대로 읽으려고 거실에 잠깐 좀 두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지저분하다고 자꾸 말도 없이 훌쩍 치워버리나이가?

당신, 지금 내 말 잘 듣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문 들어갑니다.

에헴~ 우리 집 하얀 거실 벽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림 액자며 손주 사진 그리고 달력도 좀 걸어놓고 하면 좋지 않겠소. 그림 보며 푸르른 옛 시절 산골짜기도 떠올려보고 어제오늘 귀여운 손주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도 비교해 보고 달력 보면서 날짜 가는 것도 빨리빨리 파악하면 좋을 거 같소. 내 달력 없이 날짜를 생각하려니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느라 아주 짜증이 난다오.

마지막으로 마나님! 36개월 된 손자한테 요즘 유행하는 젤리랑 유기농 주스 좀 사준다고 손자 보는 앞에서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 하구려! 당신이 그러면 손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소? 나도 나름 당류며 칼로리, 돈보기까지 써가며 날날이 잘 보고 사 오는 거라오.

마나님! 46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리 내 말을 안 들습니까? 46년 함께 살았으면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만도 할 텐데 세월이 갈수록 내 말을 무시하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오. 이제는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같아서 더욱더 그렇다오.

한때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열아홉 처녀 땀 수줍던 아내가 첫아이를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하고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호랑이로 변한다’던 그 가사의 모델이 꼭 우리 마나님 같구려.

마나님! 이제 우리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잘 날도 아주 아주 길게 잡아서 10년, 15년밖에 안 남았다오. 이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공연히 침범하지 맙시다.

근데 이거 원, 경고장 한 번 썼다가 한 방 더 세계 얻어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오. 자타공인, 이제는 마나님이 나보다 한 3배는 더 힘이 더 세니까요. 그래도 할 말은 한다! 이상 경고 ‘끝’.

사랑 사랑 사랑

말할 수 없는 진실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71년 여름. 제가 열일곱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펜팔’이 크게 유행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살던 저도 친오빠 책장에 꽂혀 있는 잡지를 몰래 훑쳐보며 맨 뒷장의 ‘펜팔란’을 유심히 살폈었지요. 거기에는 ‘펜팔 친구’를 찾는 사람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워낙 놀거리가 귀하던 때라 ‘아하~ 영숙이는 부산에 사는구나? 인숙이는 경산~ 지철이는 광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주소지 읽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여느 때처럼 ‘펜팔란’을 훑어보는데 눈이 확 트이면서 가슴에 팍! 꽂히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 김민석. 주소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뭔가 두근대는 마음에 일단 오빠한테 들kil세라 노트에 얼른 주

소를 옮겨 적고 친구 경남이한테도 슬쩍 보여줬지요.

“야, 어때? 서울 사는 남자애는 뭐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아? 편지 해볼까?”

“오~ 이름이 민석이야? 느낌이 훈훈한 게 좀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너 이미 편지 주고받는 남자애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학수? 에이~ 학수는 그냥 친구고.”

“아이, 그래도 학수가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사실 그때 제가 이미 학수라는 남자애랑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린 진짜 그냥 친구였어요.

저는 학교를 안 다니는 대신 버스정류장 앞에서 엄마 국수 가게 일을 도왔었는데 학수가 거기서 국수 몇 그릇 먹으면서 저랑 안면을 트게 된 거거든요. 제가 교복 입은 학수한테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냐, 넌 꿈이 뭐냐 몇 가지 물었다가 편지를 나누게 된 게 다예요.

“근데 네 말이 맞긴 하네. 둘이 뭐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개랑은 먹는 얘기랑 주말에 논 얘기밖에 안 한다며.”

“그래 그렇다니깐. 그럼 나 진짜 편지 보낸다? 답장 오면 너한테 젤 먼저 보여줄게.”

서울 사는 민석이에게 보낼 편지, 아~ 첫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답장은 꼭 받고 싶는데 뭔가 제가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국수 팔고 있다고 하면 민석이가 재미없어 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진짜 만날 사이도 아니고 그냥 편지 몇 번 주고받는 게 다니까 한 번 여고생이라고 말해볼까 싶더라고요.

<민석 군에게. 안녕? 나는 강원도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열일곱 살 당당이라고 해. 잡지 뒷면에 적혀 있는 네 주소를 보고 편지를 쓰게 됐어. 나는 국어를 좋아하고 책 읽는 게 취미야. 넌 어떠니?>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글씨도 예쁘게 잘 쓰니까 국어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오빠 잡지 훑쳐본 것만 다 합쳐도 책장 네 칸은 거뜬할 텐데 잡지도 엄연한 책이니깐요.

<나는 얼굴이 하얗고 친구들한테 꽤 예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민석이 너는 서울 애들이랑만 알고 지내지? 우리가 편지하게 되면 내가 강원도 얘기 많이 들려줄게.>

얼굴이 화끈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드는 편지를 쓰고 아버지 몰래 우표를 사서 봉투에 붙인 다음 얼른 우체통으로 달려갔지요.

며칠 후 배달부 아저씨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원래 학수한테서 답장이 올 때마다 아버지 눈을 피해 전해주던 고마운 분이셨지요.

“아저씨, 편지 왔어요?”

“그래. 집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직이요! 얼른 주세요!”

“자, 여기! 학수 답장!”

“아~ 학수 것만 왔어요?”

“그리고 왔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새 친구 생겼나 보네? 그것도 서울애?”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

니다. 그제 얼른 봉투를 받아 들고 편지를 꺼내 단숨에 읽어 내려갔지요.

<안녕? 나도 열일곱 살이고 국어 시간을 정말 좋아해. 우리 님은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편지하자. 나도 강원도에는 친구가 없어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거든.>

저는 민석이의 답장을 보자마자 ‘야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누군데 그렇게 좋아서 난리야? 다 읽었으면 얼른 숨겨. 아버지 오실라.”

아주 싱글벙글 드디어 서울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날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석이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너희 학교는 한 반에 몇 명이야? 선생님들은 어때? 많이 무섭니? 나는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형들이 아주 엄해서 운동장을 잘 못 쓰거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학수랑 편지하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민석이가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을 때 이전에 학수가 보내준 편지를 참고해 제 얘기처럼 조금씩 바꿔 보내기도 하고, 도통 모르겠을 때에는 민석이가 보낸 질문을 학수에게 대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는 저랑 편지하는 게 재밌었는지 <오늘은 사진 한 장도 같이 보내. 교복 입고 처음 찍은 건데 좀 어색하지? 너도 교복 입고 찍은 사진 있으면 보내줄 수 있어? 강원도 교복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래.> 하면서 자기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하얀 얼굴에 단정하게 생긴 모범생 느낌. 강원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분위기였지요.

‘민석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나도 사진을 보내줘야겠지?’

순간 당황했지만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한 살 터울인 사촌 언니가 바로 근처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을 우리 집에 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와서 나 사실 학교 안 다닌다고 고등학교 교복은 입어본 적도 없다고 털어놓을 순 없으니 애라 모르겠다 그냥 그 사진을 봉투에 넣어 민석이에 게 보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지요.

민석이에게 제 사진을 보낸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쯤 답장이 와야 되는데 통 소식이 없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어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국숫집에 있을 시간 아니야?”

“아저씨, 혹시 서울에서 편지 온 거 없어요? 아저씨가 잃어버린 거 아니죠?”

“없어. 서울에서 온 건 없고 안 그래도 오늘 학수가 답장 보냈다. 애, 이거 들고 가.”

애타게 기다리던 민석이는 감감무소식. 대신 학수가 보낸 편지만 도착했다는 겁니다. 슬슬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 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사진에 얼굴이 맘에 안 들었나? 아난데? 언니 꽤 예쁜 편인데? 허억! 혹시 사진 들고 학교로 찾아왔던 거 아니야? 다 들킨 거면 어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민석이한테 모 고등학교 다닌다고 사촌 언



니가 다니는 학교 이름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민석이가 그 학교에 찾아와서 사진을 내밀고 ‘OOO’를 찾고 있다고 했다면? 그래서 사진 속 여자애는 OOO이가 아니라 OOO 사촌 언니라고 진실이 다 탄로 났다면?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학수가 보낸 편지를 뜯어보니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여덟 시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적혀있더라고요.

애는 또 왜 갑자기 난리람. 머리는 지끈지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날이었습시다.

결국 그 주 토요일까지도 민석이에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잔뜩 우울해져서는 우선 약속 시간에 맞춰 터덜터덜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구석에 걸터앉아 한숨을 푹 내쉬는데 저기서 학수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라고요.

“왜? 넌 왜 이 야밤에 여자애를 오라가라야?”

“너, 펜팔 하지?”

“어?”

“맞지? 것도 서울 놈이랑?”

학수에게 아주 숨길 작정은 아니었지만 대뜸 그런 말을 들으니 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 너, 서울 남자애랑 편지 주고받은 거 맞아? 아니야?”

“참나, 오랜만에 만나서 갑자기 왜 이래? 됐어! 나 갈래.”

너무 당황해서 일단 자리를 피하려는데 학수가 저를 가로막더니 편지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네가 그 자식한테 보낸 편지지!”

저기엔 우리 사촌 언니 사진도 들어있을 텐데 그걸 학수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굴이 벌게지고 막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래서 괜히 소리를 뽁 질렀죠.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어? 뭐야 설마 민석이가 너희 학교까지 찾아가서 나 수소문했어?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갖고 있지.”

“뭐라고?”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민석이한테 사진을 보낼 때 학수한테 보낼 편지 같이 써서 부쳤는데 그 과정에서 편지지를 아예 바꿔서 잘못 넣었던 거지요.

원래 학수한테 보낼 답장에는 요즘 국숫집 일이 너무 힘들다고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는 투정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그걸 민석이가 읽었다고 생각하니 결국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장이 오지 않았던 거고요.

“너, 서울 놈이 나보다 좋아? 너 진짜 얼굴도 못 보여주고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해야 편지할 수 있는 애랑 대체 뭘 할 건데?”

“그런 거 아니거든?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럼 펜팔을 왜 해? 이참에 그만둬. 너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나중에 일 더 커지는 거 몰라. 그리고 말이야. 나랑 편지하는 것으로는 모자란 거야? 나는 시골 촌놈이라 싫다 이거야?”

돌아보면 그때 편지지를 바꿔 넣은 게 참 잘된 일이다 싶어요. 거짓말이 더 커지기 전에 일을 정리하게 됐고 저는 전혀 몰랐던 학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알고 보니 학수가 꽤 오랫동안 저를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알고 난 후 학수를 달리 보게 됐고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그 학수가 바로 제 옆지기가 되어 벌써 50년 가까이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원도 산골이 왜 그리도 지겹고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다 멋져 보이던지 참 무모하고 철없는 시절이었지만 그 래도 나름의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이만하면 다행이다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이 짓도 오래는 못 해요. 오래 할 일이 아니라고요. 어제는 화나는 걸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세상에 무슨 사우나실 문을 죄 열 어놓으니 그 열기가 다 세신실로 오는 거예요. 이 더위에 연일 힘든데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번열이 나고 열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진해서 죽겠더라고요. 나더러 일흔 살까지 이 일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지, 날 생각해서 그러겠어요?”

세신사 언니의 푸념을 한참 들었다. 그러고는 박미선 언니 건강은 어떠냐고 묻는다. 이제 힘든 치료 다 끝났다 하니, “그럼 공기 좋은 데 가서 쉬어야 하는데...” 걱정을 한다.

“일 그만둬봐. 한 석 달 지나면 노는 것도 지칠걸? 사람들이 그리울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각양각색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웬만한 심리상담사보다 낫지! 삶의 지혜가 늘잖아?”

그 말을 건네고 아침 일찍 목욕을 마쳤다.

올해는 늦더위가 한참이나 이어졌다. 여름이 6월부터 9월까지라니. 얼척 없다.

남편의 암 치료도 끝났다. 수술과 항암을 안 할 정도였으니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식생활에 신경을 쓰게 된다. 작년의 뇌경색에 이어 올해 전립선암까지 내가 마음 쓸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나의 되풀이되는 말에 남편이 버럭 한다. 내가 말했다.

“좋자고 사는 거 아닌가? 혼자 살 때보다 마음이 좋아야지~ 참! 자기 좋아지라고 걱정돼서 하는 말에 그렇게 화를 내냐?”

뇌경색 후유증을 살펴봤다. 편마비, 언어장애, 균형 상실, 우울증과 불안 등등. 재발을 막으려면 결국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 체중 관리, 금연과 절주, 정기검진 등. 금연과 절주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정기적 검진과 재활도 꼬박꼬박 지키고 있다. 걷는 뒷모습을 보면 약간의 장애가 보이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방송에서 늘 건강을 얘기해도 원치 않는 일이 닥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겠지. 삼시세끼 집밥과 운동에 술·담배를 멀리해도 일은 터진다.

시누 댁에도 우환이 있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있다. 요양병원 면회는 주 1회만 허용된다. 온통 줄을 꿋고 있으니 침대에 묶여있는데 손이 좀 자유로우면 줄을 막 잡아당겨 빼버리니까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파킨슨병 때문에 침조차 삼키지 못하니, 침이 그대로 넘어가며 폐렴으로 이어진단다. 침 속에도 균이 있어 폐렴의 원인이 된다니, 참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노년이 아닌가?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남의 도움 없이 가고픈 곳을 다니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여성시대에서 얼마 전, 나이 칠십에 면허를 따고 아들이 사준 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 잡수시며 두 분만의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을 소개했었다.

나의 운전도 여든까지일 것 같다. 동창들은 다들 면허를 반납했거나 동네 마트 정도까지라 한다. 내 차 조수석은 굵힌 자국이 제법 많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굽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괜찮다는 자부심이 있다. 모름지기 조심 운전해야지! 반사신경도 둔해졌다. 할머니 운전으로 모드를 바꿔야 한다.

10월이여 두 팔 벌려 환영하노라!



청춘의 덧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8월 말에 생일이었던 나는 동갑내기 친구에게서 받은 축하 메시지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이제 만 46세가 되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웃더니 그냥 47세라고, 낼모레 50이 되는 걸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걸 중요한 문제다. 40대 중반이나 후반이냐의 갈림길.

그야말로 백세시대라서 아직 인생의 절반도 못살아온 애송이지만 요즘 부쩍 얼굴의 주름이 신경 쓰인단 말이다. 눈가의 주름이야 웃을 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라지만 이마를 가로지르는 지렁이들. 그리고 목에 보이는 주름들까지. 언제 이렇게 조용히 뚜렷하게 자리 잡았는지 원.

지금까지의 40대를 나는 사랑했다. 많은 걸 이룬 건 아니지만 30대에 비해 한결 여유로운 마음과 그에 따른 편안한 인상, 가슴 한 켠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열정까지. 어디서든 굳이 눈치를 보거나 작아질 필요 없는 이 상태가 참 좋았다. 가끔 듣는 “어머~ 아직 30대로 보이는데 이렇게 다 큰 아들이 둘이나 있

어요?”라는 인사말이 참 뿌듯했다. 에헴. 그래 20대 땐 노안 소리 들었지만, 이대로 쪽 가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40대는 40대고 만 46세라고 주장해도 40대 후반인 건 어쩔 수 없다. 중년이란 부름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는 내 뜻과 다르게 내 몸이 고개를 돌려 반응하려 한다.

얼마 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자동차 레이싱 영화를 봤다. 주연 배우와 자동차를 좋아하니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였는데 역시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 몰입감 최고. 여전히 그 영화의 수록곡을 들으며 내 차의 시동을 건다. 마치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된 것처럼. 극 중 브래드 피트도 동료는 나이로 놀리듯 노땅 레이서로 나온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섹시’하다. 63년생. 한국 나이 62세. 미션 임파서블에서 아찔한 곡예 장면을 스텐트맨 없이 직접 연기하는 톰 크루즈 형님은 한 살 더 많은 62년생. 이런 두 형님을 보면 난 아직 짱짱하다.

현실감 없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소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뭐 각자의 영화를 위해 안면거상이니 여러 시술이니 젊어 보이 고자 부단히 노력한 배우들이니. 하지만 두 배우가 단순히 젊으 로만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다면 오히려 어색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청춘의 열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 결과 브래드 피트는 이번 영화로 인해 나이 육십 넘어 최고 흥행작을 갖게 된 거겠지.

여성시대에서 배운 어른의 두 가지 덕목. 경청과 성장. 그래 나도 멋진 어른, 중년이 되기 위해선 주름을 허들처럼 넘어 성장하는 거다! 나의 사십 대 파이팅팅!



IBK기업은행

기업의 [사명]

MISSION

使命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실균 조명 개발 R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돈든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유효기간: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